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 연구 08-26

미디어과잉과 사회의 불확실성의 증가

구교태/최현주

2008. 12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 연구 08-26

미디어과잉과 사회의 불확실성의 증가

2008. 12

연구 기관 : 계명대학교

연구책임자 : 구 교 태

참여연구원 : 최 현 주

제 출 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미디어과잉과 사회의 불확실성의 증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1. 28

연구기관: 계명대학교

연구책임자: 구 교 태

공동연구원: 최 현 주

목 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장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이용	16
제1절 미디어 과잉 현상	16
제2절 미디어 이용 특성	25
제3장 정보 과잉의 정의와 효과	28
제1절 정보 과잉의 정의	28
제2절 정보 과잉의 파급 효과	31
제4장 정보 특성과 사회 불확실성	37
제1절 정보 과잉시대의 정보	37
제2절 정보 과잉과 사회 불확실성	40
제5장 정보 과잉에 대한 수용자 인식 조사	44
1. 조사 설계	44
2. 주요 변인의 측정	45
제2절 표본의 특성 및 척도의 신뢰도	47
1. 표본의 특성	47
2. 분석 척도의 신뢰도	49

제 3 절 주요 변인들의 측정 결과	50
1. 정보과잉	50
2. 미디어 이용 행태	53
3. 사회적 인식	55
4. 개인적 정서 및 신체 증상	59
제 6 장 미디어 이용행태와 정보 과잉 인식	62
제 1 절 미디어 이용행태와 정보과잉 인식	62
1. 이용 매체 수와 정보과잉	62
2. 매체 유형과 정보 과잉	63
3. 매체 이용 동기와 정보 과잉	63
제 2 절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정보 과잉	64
제 3 절 정보과잉 인식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력	67
제 7 장 정보 과잉이 사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69
제 1 절 정보 과잉과 사회불안감	69
제 2 절 정보 과잉과 사회 불확실성	71
제 3 절 정보 과잉과 사회 신뢰도	72
제 4 절 정보 과잉과 정보 신뢰	77
제 8 장 정보 과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79
제 1 절 정보 과잉과 개인적 정서	79
제 2 절 정보 과잉과 신체적 증상	80
제 9 장 정보 과잉과 속의 민주주의	82
제 1 절 불확실성 대응방식	82
제 2 절 미디어와 참여 및 토론	86

제 10 장 결론 및 함의	89
제 1 절 미디어 이용과 정보 과잉	89
제 2 절 정보 과잉의 개인적 의미	91
제 3 절 정보 과잉의 사회적 의미	92
제 4 절 정보 과잉이 민주주의에 지니는 함의	95
참고문헌	96
부 록	100

표 목 차

〈표 2-1〉 방송 미디어 사업자 수 변화 추이	17
〈표 2-2〉 방송 미디어의 채널 운영 현황	20
〈표 2-3〉 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분포 및 변화	21
〈표 2-4〉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변화 추이	22
〈표 2-5〉 연도별 인터넷 KR 도메인 수 변화 추이	23
〈표 2-6〉 연도별 신문 매출액 및 매체수의 변화	24
〈표 2-7〉 TV 시청 행태의 변화	25
〈표 2-8〉 국민 1일 미디어 이용시간	26
〈표 4-1〉 정보 주기(frequencies)관점에 의한 정보 특성	38
〈표 4-2〉 저널리즘 특성의 변화	40
〈표 5-1〉 전국 인구 비율과 조사 참여자 수	44
〈표 5-2〉 정보 과잉 연구 조사 설계	45
〈표 5-3〉 설문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8
〈표 5-4〉 분석 척도 및 신뢰도	49
〈표 5-5〉 정보과잉 인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51
〈표 5-6〉 정보과잉 부담 경험	52
〈표 5-7〉 정보 과잉과 정보 과잉 부담 경험 간의 상관관계	53
〈표 5-8〉 미디어별 이용시간 평균 및 표준편차	54
〈표 5-9〉 사회적 감정의 평균 및 표준편차	56
〈표 5-10〉 사회적 불안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56
〈표 5-11〉 사회 불확실성 측정 항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	57
〈표 5-12〉 개인적 정서의 평균 및 표준편차	60
〈표 5-13〉 신체증상의 평균 및 표준편차	61

〈표 6-1〉 매체 수 및 이용시간과 정보 과잉 간의 상관관계	62
〈표 6-2〉 정보 과잉에 대한 미디어 이용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3
〈표 6-3〉 정보 과잉에 대한 매체이용 동기 회귀분석 결과	64
〈표 6-4〉 정보 과잉과 사회인구학적 속성 변인의 상관관계	65
〈표 6-5〉 정보 과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속성의 영향력	67
〈표 6-6〉 정보과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속성 및 미디어 이용량	68
〈표 7-1〉 정보과잉과 사회감정의 상관관계	70
〈표 7-2〉 정보 인식(정보 과잉, 정보 부담)과 사회 불안의 상관관계	71
〈표 7-3〉 정보 과잉과 사회 불확실성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72
〈표 7-4〉 국가조직 신뢰 정도에 대한 요인분석	73
〈표 7-5〉 사회인식(불안, 불확실) 및 미디어 이용 시간이 조직신뢰에 대한 상관관계	74
〈표 7-6〉 특정 인물에 대한 신뢰도와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한 상관관계	76
〈표 7-7〉 특정 인물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인식의 상관관계	77
〈표 7-8〉 정보 인식(과잉, 부담)과 매체별 정보신뢰도 상관관계	78
〈표 8-1〉 정보환경과 개인적 정서간의 상관관계	80
〈표 8-2〉 정보환경(정보 과잉, 정보부담)과 신체적 증상의 상관관계	80
〈표 8-3〉 정보 과잉과 신체적 증상 상관관계	81
〈표 9-1〉 정보 과잉과 대처방안에 대한 상관관계	82
〈표 9-2〉 성별 불확실성 대응 방식 차이	83
〈표 9-3〉 연령별 불확실성 대응방식에 대한 분산분석	84
〈표 9-4〉 연령별 대화/토론 증대에 대한 다중비교분석	84
〈표 9-5〉 소득별 ‘대화/토론 증대’에 대한 분산분석	85
〈표 9-6〉 소득별 대화/토론 증대에 대한 다중비교분석	86
〈표 9-7〉 정보 과잉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상관관계	86
〈표 9-8〉 인터넷 댓글 참여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87
〈표 9-9〉 인터넷 토론 참여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87

그 립 목 차

〔그림 3-1〕 정보처리와 정보부하 관계	32
〔그림 5-1〕 매체별 정보 이용 동기	55
〔그림 5-2〕 국가 조직에 대한 신뢰 정도(5점 기준)	58
〔그림 5-3〕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5점 기준)	59
〔그림 6-1〕 연령대별 정보 과잉 인식 변화	65
〔그림 6-2〕 학력별 정보 과잉 인식 변화	66
〔그림 9-1〕 연령대별 댓글 및 토론 참여 정도	88

요 약 문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은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숙의 과정을 거쳐 상호이해에 도달하여야 한다. 미디어가 분화하고 팽창하여 다양한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여론조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 없이 정보화를 추구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때이다. 더 많은 정보가 반드시 더 나은 정보를 의미하지도 않고, 정보가 넘쳐날 때 더 많은 실수를 하거나, 타인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정보의 과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 팽창에 의한 정보 확산이 가져다줄 개인적, 사회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설계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미디어 팽창에 의한 정보 과잉의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성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정보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점검하는 것이며, 지금의 담론 공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민주적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성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디어 과잉에 따른 정보 과잉 현상을 통해 경험적(empirical)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기술에 의한 유토피아적 환상을 가지고 정보화 사회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행정적인 패러다임을 재조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미디어 과잉 현상을 조명해보고, 미디어로 인한 정보 환경의 다양한 효

과들을 기존 문헌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주요 개념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기된 연구목적에 의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다양한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새로운 미디어가 가져온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정보 처리 부담감을 살펴보고, 나아가 새로운 정보 환경의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이 인식하는 정보 과잉 환경이 개인의 신체적 증상 및 정보처리에 대한 부담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사회에 대한 불안 및 불확실에 대한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 불안 및 불확실은 국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신뢰 정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미디어 팽창에 의한 정보 과잉은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측면이 국가 및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및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도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넘어선 정보 과잉 현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미디어 환경이 사람들의 정보 과잉과 높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 과잉은 정보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학력 및 소득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IT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젊은 이들 사이에서도 정보 과잉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보 부자라고 인식되어 왔던 사람들에게 정보 과잉의 심각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보 과잉과 정보 과잉에 의한 정보처리의 부담 요인은 개인의 정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 과잉의 영향력은 개인적 차원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 과잉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초조해지거나 우울/실망감이 증대될 수 있고, 불면증, 동통, 소화기 장애, 심장혈관장애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이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위해서도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도 정보 과잉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 과잉과 이에 따른 정보 처리 부담감이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러한 평가들은 국가 조직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 과잉의 부정적 효과로서 사회불안과 사회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국가 조직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속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trust)가 미디어 환경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미디어 과잉과 사회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미디어 수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미디어 환경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술적 측면에서 정보 과잉에 대한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주제는 심리학, 사회학, 언론학, 정치학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들 분야와의 공동연구 활동을 통해 미디어 과잉의 다양한 영향들을 새롭게 조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실험연구 등을 통해 정보량과 적절한 정보처리 능력(information process capacity)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올바른 미디어 및 정보의 사용법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실증적 연구결과는 사회 불안과 불확실성이 미디어 팽창에 의한 정보 과잉 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사람들이 정보 과잉 환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손쉽게 정보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방안이나 효과적인 미디어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문서정리 및 스팸 사전 차단과 같은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세워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정책적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신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사회제도의 안정과 미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 제도의 투명성을 배가하고 홍보 목표에 따른 체계화된 메시지 구성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5.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풍부한 미디어 환경과 다양한 정보 환경이 미디어 기술 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검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 각 영역에서 정보 과잉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메커니즘 개발에 대한 노력이 기대된다. 나아가 교육적 측면에서도 미디어에 대한 조기 노출의 적절성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리라 기대되며, 이러한 정보환경을 관리할 국가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메일 수신과 발신, 메신저, 인터넷 신문 검색, 모바일 문자 혹은 음성 메시지, 일정을 알리는 휴대폰 알람, 다양한 인쇄매체의 기사, DMB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위치 정보와 관련된 내비게이션 정보 등 수많은 매체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삶에 부과된 수많은 자극들은 우리의 집중을 방해할 정도로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한국 사회는 불확실한 정보 유포로 인해 몇몇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국민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유명 탤런트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량 유포시키는 ‘사실정보지’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디어 과잉에 의한 정보의 지나친 확산이 개인과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이를 진단하고 극복할 학술적 논의와 관심은 간과되어 왔다.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가 반드시 더 나은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보가 넘쳐날 때 더 많은 실수를 하거나, 타인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정보의 과급효과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부정확한 정보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검색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보내곤 한다. 로이터(Reuters)의 연구(1996)는 특히 인터넷이 세계적인 정보 집착을 가속화시켰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미디어들이 궁극적인 정보 도구로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며, 인터넷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이미 우리의 정보처리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불안

과 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한 불확실성의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가 유용한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타자의 언어, 사유,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여론을 확인시켜주며, 참여를 통한 진정한 민주 담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은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한 결정들의 단순한 취합이 아니라,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숙고함으로써 상호이해에 도달한 공적 시민들의 합의로 설명되고 있다(강상현, 2002). 인터넷 미디어는 여론조성을 위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의 특성을 보여 매스 미디어가 정보 유통과 정치과정을 매개하던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는 이성적인 토의 및 합리적인 숙고를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개념으로 삼기 때문이다. 인터넷 미디어는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보다 원숙한 민주주의 형태라 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사이버공동체에서 쉽게 발견되는 소집단 유대강화현상, 다른 사람들과의 숙의적인 토론 없는 의견교환, 집단 사고와 감정의 표출 등에서 보듯 오히려 숙의민주주의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이 가능한 매체로서 인정받은 인터넷에서 수많은 공론들이 지나치게 팽창하여 스스로의 의미 결핍을 가져오고, 기호 환경의 오염으로 소통성의 결핍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박창호, 2004). 사람들이 숙의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한 참여자간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정보 환경이 상징체계와 의미생산의 왜곡을 초래한다면 우리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고 종국에는 공공영역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정보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은 상호작용을 위해 타인과의 사이에서 이뤄진 대화를 읽고,

해석하고, 문장을 형성하는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탈 중심적인 참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수많은 공론을 팽창시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정보환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이모티콘, 외계어, 축약어 등 인터넷 가상공간의 오염된 기호 환경과 지나친 정보 과잉은 소통의 장애가 되어 개방적이고 진정한 담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디어 팽창에 의한 정보 과잉의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민주성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민주적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공론장의 기능이 회복되기 위한 역할을 지금의 미디어는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성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empirical)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기술에 의한 유토피아적 환상을 가지고 정보화 사회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행정적인 패러다임을 재조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제 2 장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이용

제 1 절 미디어 과잉 현상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텔레비전이라는 방송매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 거의 30여 년 동안 텔레비전은 3~4개의 지상파 채널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평균 70여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케이블 TV가 등장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다채널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케이블 TV가 그동안 그 파급력을 확대해가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케이블 TV 사업자와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제공업자의 수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케이블 가입자의 수적 증가는, 즉 케이블 보급률의 증가는 단순히 점차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방송의 서비스를 받게 됨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케이블TV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업자 수의 증가는 한 사람이 제공받게 되는 서비스의 양이 점차 증가해 왔음을 보여주는데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케이블 TV 사업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수의 증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프로그램 제공업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전송망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보내주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Re-transmission Operator) 또한 프로그램을 수용자들에게 송신하는 사업자인데, 이들은 단순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의 증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관계에서만 살펴보았다.

케이블 TV는 1994년 총 53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되어, 1997년 중소도시에 2차 SO를 허가함에 따라 77개로 늘어났다. <표 2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까지 77개가 유지되다가, 2001년에는 SO사업자가 30여개 더 증가한 110개가 된다. 이는 고사상태에 빠져있는 케이블 TV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유선방송 시장의 통합을 추진한 결과로서, 2001년 33개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가 SO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듬해에도 9개의 중계유선사업자(RO)가 SO 승인을 받으면서 SO의 수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방송위원회, 2005). 그러나 2006년부터 SO들의 흡수통합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다소 주춤하게 된다. 케이블 TV가 등장한 지 10여년 만에 53개였던 사업자 수가 2배를 넘어선 11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은 케이블 TV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1〉 방송 미디어 사업자 수 변화 추이

년도	지상파TV**	종합유선	중계유선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1994	3	53	896	-	-	-	26
1995	8	53	908	-	-	-	26
1996	8	53	852	-	-	-	26
1997	12	77	860	-	-	-	26
1998	27	77	860	-	-	-	26
1999	31	77	855	-	-	-	28
2000	31	77	821	-	-	-	42
2001	32	110	696	-	-	-	121
2002	33	110	638	1	-	-	165
2003	33	119	408	1	-	-	123
2004	33	119	299	1	-	-	159
2005	32	119	198	1	1	-	144
2006	32	111	160	1	1	6	173
2007	32	107	139	1	1	6	187

* 출처: 방송위원회 〈2002-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이상식(2008), 〈한국케이블 TV 산업정책론〉, 한국언론재단 〈미디어 산업 통계〉 자료로 재구성

** 주(註): 2006년 12월 현재 지상파TV 사업자로는 KBS, MBC, 지역MBC 19개사, EBS, SBS를 포함한 10개 지역민영방송 등 총 32개 사업자가 있다.

다음으로, 케이블 TV 시청자들에게 방송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케이블 TV 채널을 채우는 콘텐츠 생산 능력의 확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프로그램 공급업자(PP: Program Provider)를 뜻하는 법률용어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시 PP를 대신해 사용하게 되었다(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2항 라호)(이상식, 2008).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994년 26개로 시작하여 한동안 같은 수의 사업자가 유지되다가, 2000년에 들어서서 허가 및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42개로 늘어나더니, 2001년에는 121개, 2002년에 165개로 급증하였다. 2003년에는 29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폐업하여 123개로 줄어들기도 하였지만, 2004년 159개로 다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144개로 다소 감소하였다. 급증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적 감소는 급속하게 증가하던 채널사용사업자의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방송위원회, 2006). 2006년에는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의 증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가 다시 증가하여 173개(법인기준)가 되었다(방송위원회, 2007). 해마다 다소의 증감은 있었지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도 처음 등장할 당시 26개였던 것이 2006년에 173개로 엄청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케이블 TV의 경우, 케이블 TV 사업자의 수도 도입 당시보다 배로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도 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케이블 TV의 등장이 단순히 한 개의 미디어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얼마나 더 많은 콘텐츠들을 생산, 공급해 왔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채널을 가능하게 했던 케이블 TV의 등장과 더불어, 2002년 3월에는 그 당시 110여개의 채널을 제공하며 등장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SkyLife)에 의해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는 더욱 배가된다. 7년여에 걸쳐 케이블TV가 독점했던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위성방송까지 등장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및 채널의 범위는 한층 확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이동 중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

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멀티미디어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이 등장하였다. 5월에는 TU미디어가 위성 DMB 방송을, 그리고 12월에는 KBS, MBC, SBS, YTN디엠비, 한국DMB 및 유원미디어의 6개 사업자가 방송 허가를 받아 지상파 DMB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방송위원회, 2006). 2008년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다채널 방송프로그램 등을 TV로 제공하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까지 상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송매체만 보아도 지난 10여년간 지상파 TV 외에 케이블 TV, 위성TV, 손 안의 TV라는 DMB(위성 및 지상파), 그리고 IPTV 등 다양한 미디어들이 새롭게 등장해 왔다.

방송에 있어서 새로운 방송 미디어의 출현만큼이나 각 미디어가 제공하는 운영채널 수의 변화도 미디어 과잉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각 방송별 채널 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 2-2>를 보면, 위성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채널수가 매년 전반적으로 증가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 개국 당시 114개의 채널을 서비스하였으나, 5년이 지난 2007년에는 그 2배에 이르는 220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 TV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SO)의 평균 채널 수는 조금씩 증가해 왔는데, 2006년도에 급작스럽게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대폭 감소해 그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위성DMB의 경우는, 2006년 4월 현재 자체 채널 3개(ch.BLUE, TUBOX, CH GREEN), TV채널 12개, 오디오 채널 20개 등 총 35개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다(방송위원회, 2007).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방송 미디어들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채널들을 가진 다채널 미디어로서, 엄청난 정보 및 영상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표 2-2〉 방송 미디어의 채널 운영 현황

년도	위성방송 채널수	종합유선방송 평균 채널수	중계유선방송 평균 채널수
2002	114	68.5	-**
2003	113	71.4	20.3
2004	162	74.2	20.2
2005	162	77.0	19.1
2006	204	106.5	21.6
2007	220	75.94	22.1

* 출처: 방송위원회 〈2002-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자료 재구성

** 주(註): 2002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평균 채널 수는 보고서에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중계유선방송의 방송운용 채널규모에 따른 사업자 수를 제시하였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11개-20개의 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의 수가 60.2%, 21개-31개 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 수가 25.1%를 차지하고 있어, 11개-31개의 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의 수가 85.3%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설명한 새로운 미디어들의 등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인터넷 미디어다. 이는 인터넷의 보급 확대와 인터넷 정보의 양적 증가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미디어들과는 기본적으로 달리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인터넷 인구의 확산 정도를 살펴보면,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인구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의 인터넷 인구 변화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인터넷으로 부터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표 2-3〉 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분포 및 변화**

지역	2008년 인구	2000 인터넷 인구 (00/12/31)	2008 인터넷 인구 (08/06/30)	지역별 비율	증가율 (‘00-’08)
Africa	955,206,348	4,514,400	51,065,630	5.3%	1,031.2%
Asia	3,776,181,949	114,304,000	578,538,257	15.3%	406.1%
Europe	800,401,065	105,096,093	384,633,765	48.1%	266.0%
Middle East	197,090,443	3,284,800	41,939,200	21.3%	1,176.8%
North America	337,167,248	108,096,800	248,241,969	73.6%	129.6%
Latin America /Caribbean	576,091,673	18,068,919	139,009,209	24.1%	669.3%
Oceania/Australia	33,981,562	7,620,480	20,204,331	59.5%	165.1%
합 계	6,676,120,288	360,985,492	1,463,632,361	21.9%	305.5%

* 출처 : <http://www.internetworldstats.com>.

** 주(註) : 자료는 Nielsen/NetRatings,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local NIC 등을 통해 수집되었다.

세계적인 인터넷 인구의 증대 현상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인터넷 이용자가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약 80%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2-4〉가 보여주듯이, 2000년 당시 인터넷 이용률이 이미 45%에 이르렀고 2008년 3월 한국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약 3,4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6.3% 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4명 중 3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2-4〉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년도	인터넷 이용자수	인터넷 이용률
2000	19,040,000	44.7
2001	24,380,000	56.6
2002	26,270,000	59.4
2003	29,220,000	65.5
2004	31,580,000	70.2
2005	33,010,000	72.8
2006	34,120,000	74.8
2007	34,820,000	76.3

* 출처: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07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08년 1월, p. 2.

위와 같이 인터넷의 이용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만큼,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양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인터넷에서 정보의 양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하나로, 문자로 표현된 인터넷 주소라고 할 수 있는 도메인 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 2-5〉를 살펴보면, KR로 등록된 도메인 수는 인터넷 미디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던 1995년에 436개에 불과하던 것에서 2008년 현재 약 95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10여 년 전에 비해 약 2,000% 이상 증가된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로써 인터넷의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2-5〉 연도별 인터넷 KR 도메인 수 변화 추이

년도	KR 도메인 등록 수	증감치
1995	436	244
1996	2,664	2,228
1997	8,045	5,381
1998	26,166	18,121
1999	206,973	180,807
2000	517,354	310,381
2001	457,450	-59,904
2002	515,200	57,750
2003	611,548	96,348
2004	590,800	-20,748
2005	642,770	51,970
2006	705,775	63,005
2007	930,485	224,710
2008	953,601	23,116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인터넷 통계정보 검색 시스템' <http://isis.nida.or.kr/>

도메인 수의 증가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단편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인터넷은 하이퍼텍스트라는 매체 텍스트의 속성상 무수히 많은 텍스트들이 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히 연결됨으로써 인터넷의 정보는 실로 엄청난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이른바 올드 미디어의 매체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를 위해 현재 대표적인 올드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신문매체의 수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문매체의 수뿐만 아니라 매출액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7년에는 신문매체의 수가 35개에서 169개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에 반해 매출액은 2006년 26,140억 원에서 2007년 32,308억 원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급격히 늘어난 매체 수에는 크

게 못 미치는 매출액의 증가로 볼 때, 이는 무가지 신문과 지역 주간신문의 폭발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6〉 연도별 신문 매출액 및 매체수의 변화

(단위: 억원)

년도	매출액	매체수
1980	1,372	5
1985	2,877	6
1990	6,302	8
1995	17,169	9
1997	18,087	9
1998	15,333	14
1999	23,667	39
2000	28,905	43
2001	26,579	44
2002	29,571	41
2003	26,456	39
2004	24,669	37
2005	24,379	37
2006	26,140	35
2007	32,308	169

종합하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채널을 가진 미디어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미디어의 수적 증가에 따른 엄청난 채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게 되면서 이들 미디어가 담아내는 정보의 양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방대해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미디어 수나 채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미디어 환경변화가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 절 미디어 이용 특성

미디어 수와 채널 수 급증에 따른 사람들의 미디어 소비형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TV 시청행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3대 지상파방송사 네트워크 시청률은 199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5년 47.8%에서 유료방송 가입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37.5%에서 2006년 32.4% 정도로 약 5%정도 감소하였다. 반면 케이블TV 시청률은 1992년 0.7%에서 1999년까지 정체되다가 2000년부터 빠르게 상승하였다. 2000년 1.5%에서 2006년 11.8%로 약 10%정도 증가한 것이다. 지상파와 케이블뿐만 아니라 위성TV 등을 포함한 TV의 총 가구 시청률을 보면, 2000년 44.8%에서 2006년 47.3% 정도로 2.5%정도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의 수가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 채널의 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은 그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디어와 채널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람들의 미디어 소비는 약간 증가하는데 그쳐, 미디어 서비스의 공급이 이에 대한 소비를 훨씬 능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2-7> TV 시청 행태의 변화

(단위: %)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가구시청률	48.5	44.8	44.2	45.9	47.7	48.5	47.5	47.3
지상파TV 시청률	47.8	37.5	37.1	37.3	36.7	35.1	32.7	32.4
케이블TV 시청률	0.7	1.5	2.7	5.3	7.7	9.3	11.4	11.8

* 출처: 권호영(2007). 한국인의 미디어 이용과 지출행태의 변화. <KBI 포커스> 07-04(통권24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p.11 자료 재구성

2000년과 2005년 국민들이 다양한 매체 활동을 하는데 소비한 시간들을 비교한 다음의 <표 2-8>은 미디어 소비 시간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별 매체 이용시간 합계를 보면, 평일과 토요일에 1-2

분 정도의 차이만 나며, 일요일에 17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 1주일 전체 미디어 이용 시간은 11시간 13분인 반면, 2005년 1주일간 미디어 이용 시간은 10시간 57분으로 16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미디어나 채널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8〉 국민 1일 미디어 이용시간**

(단위: 시간,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신문/잡지/만화책	0.13	0.1	0.14	0.11	0.16	0.1
라디오	0.12	0.18	0.11	0.18	0.09	0.12
TV	2.24	2.09	2.52	2.36	3.46	3.14
뉴미디어방송	0.09	0.14	0.1	0.18	0.08	0.19
인터넷	0.08	0.12	0.1	0.13	0.11	0.15
휴대전화SMS		0.02		0.03		0.03
합계	3.06	3.05	3.37	3.39	4.30	4.13

* 출처: 방송통계포털. 전국민의 1일 생활시간(KBS). <http://epaper.kbc.go.kr>

** 주(註): 조사는 만 10세 이상 대상

미디어와 채널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전체적인 미디어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무수히 많은 정보들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것일까? 무수히 많은 채널들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채널을 선택해서 시청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상식·김관규, 2001; 심미선·김은미·이준웅, 2004; 심미선, 2007)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 시청자들은 이용가능한 모든 채널을 다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채널을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케이블 TV 도입으로 인한 다채널 시대 수용자들의 이러한 미디어 이용패턴을 채널 레퍼토리(channel repertoire)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이나 세대가 규칙적으로 시청하는 채널의 묶음’을 의미하는 것이다(Heeter, 1985).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인터넷 이용행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은 거의 무제한적이라고 할 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것처럼 무수히 많은 정보 속에서 실제로 개별 이용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이 관심을 갖는 영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고 취하게 된다. ‘즐거찾기’ 기능을 통해 자기가 원하고 즐기는 정보에만 보다 집착하게 되어 정보의 편향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주어진다고 해도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이 즐겨 찾는 몇몇 사이트에만 접속하여 그 속에서 대단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자신이 관심을 갖는,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함으로써 관심 영역의 과도한 분절화(hyper-segmentation)가 발생한다고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Chadwick, 2006). 따라서 ‘모두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sphere)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는 인터넷으로 인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박창호, 2004).

결국 미디어 수가 증가하고 채널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지만, TV방송이나 인터넷의 이용행태를 살펴본 결과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늘어난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영역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즉, 미디어의 수와 채널의 수는 급증하였지만, 사람들의 시청률이나 이용시간 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채널과 정보를 가진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보 선택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장 정보 과잉의 정의와 효과

제 1 절 정보 과잉의 정의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직업적, 개인적 이유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Quinn & Filak, 2005), 방송통계포털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약 11시간(2005년 기준)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사람들은 미디어를 이용할 때 기존처럼 미디어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소비하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미디어 산업은 다양한 방식의 융합(convergence)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파생 미디어와 채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용자 분화(fragmentation), 상대적으로 값싼 디지털 기술의 혜택, 미디어 교차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법적 구조의 변화는 미디어 융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광대역(Broadband)은 사람들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빠르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융합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미디어 산업은 분화된 수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매체와 채널이 등장하였지만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형태는 극히 제한적인 시간투자와 개인화된 레퍼토리에 따른 이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매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미디어 소비 현상은 보웬스(Bowes)와 솔라 풀(Sola Pool)의 연구에 의해 이미 1960년대부터 지적되어 왔다. 일본의 정보소비율을 연구한 보웬스(Bowes)에 의하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정보 공급은 400% 증가한 반면, 정보소비는 140%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솔라 풀(Sola Pool)은 미국의 정보소비율을 연구하였는데, 1966년에서 1977년까지 미국의 17개 대중미디어가 생

산한 정보량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정보증가율은 8.9%인데 반해 실제로 소비된 정보량은 1.2% 정도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석, 2002, 597-8에서 재인용).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3단계인 정보의 생산, 분배, 처리는 어느 정도 동시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인류 역사 초기에 등장하였던 북, 연기신호, 동굴벽화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에서부터 19세기 등장한 신문, 사진, 전신, 전화, 라디오,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균형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텔레비전, 위성, 케이블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이 과도한 생산 및 분배의 메커니즘을 지닌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균형은 급작스럽게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술적 발전이 정보의 생산, 재생, 분배를 급속히 향상시켜 공개되어야 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연스런 절차를 줄이게 되었으나 기술이 정보의 효율적인 제시를 담당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오남용함으로써 우리는 정보 과잉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Murray, 1998).

미디어가 팽창함으로써 정보의 생산 및 분배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앞지른 이와 같은 현상을 정보 과잉(information overflow)이라고 한다(Shenk, 1997). 달리 말하면, 정보 과잉이란 “미디어의 수적인 증가와 채널의 다양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장시켜주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용자들의 이용량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김영석, 2002, p.597). 이제 인간 정신이나 사회구조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변화의 비율과 새로운 정보의 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Heylighen, 1999).

메시지의 복잡성과 정보 과잉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호한 불만족과 불안 기제를 찾고자 할 때, 사람들은 실직, 환경오염, 부패 등과 같은 쉽게 인식 가능한 요인들에 주목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질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적절한, 불명확한,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의 폭발은 ‘나무를 통해 숲을 볼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

다(Heylighen, 1999).

특히, 생크(Shenk, 1997)는 질적으로 낮은 정보의 과잉 현상을 데이터스모그라 지칭하였다. 생크(Shenk)에 따르면, 1971년 미국인들이 매일 560개의 광고메시지를 마주하였으나 1997년에는 그 횟수가 3,000이상으로 증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많은 정보가 우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로젠과 웨일(Rosen & Weil, 1997)은 이러한 현상을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포춘 1000개 기업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업인들이 매일 전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해 하루 평균 178개의 메시지를 수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조사 응답자의 84%는 시간당 최소 3번 메시지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정보 과잉현상은 21세기 접어들면서 활성화된 인터넷문화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무수한 텍스트가 무한 연결되는 인터넷은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유통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방대한 정보량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인터넷에서 막상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검색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정보’에 대한 웹문서를 검색하면 1.35초 만에 무려 290,964,168건(2008년 10월 현재)이 나온다. 검색된 2천 9백여 건의 문서 중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정보 과잉의 문제에 있어서 생산되는 정보량 못지않게 위협적인 것은 바로 정보량의 증가 속도이다. 현대정보사회에서 웹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연구한 김영기(2007)는 정보량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레스크(Lesk)의 연구(2007)¹⁾에 따르면, 정보량이 배로 증가하는 첫 주기는 인류의 탄생 시점부터 1세기경 로마시대까지로 약 4백만 년이 걸렸다. 두 번째 주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르네상스 시기까지로 약 1500년이 걸렸으며, 세 번째 주기는 산업혁명기까지 약 250년이 걸렸다. 그러나 1967년에서 1973년까지는 6년 만에 정보량이 배가 되었으며, 1998년에는 정보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보량이 배로 증가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정보만으로도 본다면, 1999년에서 2000년까지 웹 도메인의 증가율은 285%에 이르렀다²⁾(김영기, 2007, p.8에서 재인용).

결국 다양한 매체에 의해 정보의 대량생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지만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은 제한되어 이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정보 과잉이 가져올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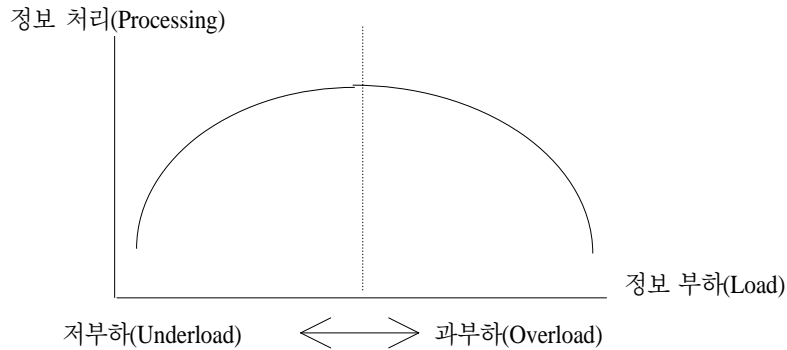
제 2 절 정보 과잉의 파급 효과

대다수의 의사결정자들은 여러 정보 단서들(clues)을 평가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에 넘어서면 잘못된 의사결정과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Hwang & Lin, 1998). 정보처리와 정보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3-1]에서처럼, 의사 결정자가 정보 저부하(information underload)를 경험할 때 정보처리 능력이 증대되지만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를 경험하면 정보처리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정보 부하(load)가 증가하여 의사결정자의 능력을 초과한다면 정보 처리는 더 이상 증대되지 않고 멈추게 되며, 정보처리 능력과 정적관계를 가진 의사결정의 질(quality)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1) Michael Lesk. "Rate of Information doubling in human history", <http://www.lesk.com/mlesk/ksg97/ksg.html>(cited 2007.8.8.) (김영기, 2007, p.8에서 재인용)

2) NetFactual, "Growth of the World Wide Web", <http://www.netfactual.com> [cited 2007. 8. 8](김영기, 2007, p.8에서 재인용)

〔그림 3-1〕 정보처리와 정보부하 관계



출처: Hwang, M. I. & Lin, J. W. (1998).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 되면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정보 또한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정보 증대는 심리학적, 육체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정보 과잉에 대한 로이터통신사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웨딩턴(Waddington, 1998)은 정보 과잉이 사람들에게 긴장상태를 증대시키며, 일부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경영자 1300명을 인터뷰 조사한 로이터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보 확산의 요인은 사업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 증가 현상, 세계화와 탈규제 경향에 의한 경쟁 증대, 커뮤니케이션 수단 등 이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요구로서, 조사 대상자의 3분의 2가 어떤 결정을 위해 많은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약 반은 동료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보 과잉 요인과 더불어 개인의 정보 욕구가 결합되어 정보 과부하(information load)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먼과 풀(Newman & Pool, 1986)은 수용자 평형모델을 통해 사람들의 전체 미디어 노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각 미디어에 대한 집중도는 오히려 저하되며 심리적 저항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기억과 관련된 연구들은 모두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Reuters, 1996)의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의 38%는 정보 검색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

으며, 47%는 정보 수집이 자신의 근무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Waddington, 1998). 정보 과잉을 경험한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많은 정보로 인해 분석력 저하 현상(analysis paralysis)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 사람들의 분석 능력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결정이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접하면 물품 구매 결정을 연기하기도 한다. 제품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리뷰에 있어서도 지나친 정보제공은 판매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이승훈·김진화·변현수, 2006). 온라인 리뷰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이를 처리해야 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보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는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 과잉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가득하게 되어 오히려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김영석, 2002). 과잉 공급된 정보에 의해 인간은 생각할 여유를 박탈당하고 그에 따라 깊은 뜻과 상황 맥락을 골고루 돌아볼 만큼의 성숙한 지적 능력을 잃게 되었으며 모든 것에 말초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가 ‘희미한 앞’의 수준에 그치고 쓰고 버리는 정보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은 혼란스럽다(신순호, 2002).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소화해야 할 뉴스의 양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뉴스를 이해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개개의 사건보도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수록 그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은 줄어드나 각 사건간의 유형과 연관 관계를 이해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자료는 넘쳐나고 그 자료들을 귀중한 정보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므로 우리는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Wurman, 1990/1993, p.43).

지금도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정보를 강박적으로 모아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야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써먹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컴퓨터 하드를 가득 채워놓은 정보의 양을 보며 흐뭇해한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정보의 내용보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중독된 자신을

발견한다(김영기, 2007). 넘치는 정보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정보수집증독에 빠져 있다 보면 정작 중요한 창조성은 사그라진다. 뭔가에 대해 알고 정리하면서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적으로 생각해 이를 실천하면서 인류는 발전해 왔다. 그런데 정보 과잉시대에는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는 데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여 정작 창조적 사고를 할 여지는 줄어든다(김영기, 2007). 수많은 정보 앞에 무엇이 진실이고 의미가 있는지를 놓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수많은 정보를 저장만 하고 있을 뿐, 영양가 있는 지식을 만들지 못하므로 지적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어 실행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정보에 대한 불안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의 현격한 차이에서 생겨난다. 세상의 정보량에 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량이 현격히 부족하다는 주관적인 정보결핍감이 정보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보폭식을 낳게 된다. 하지만 정보폭식 자체는 지식과 지혜가 되지 못하기에 정보결핍감은 더해가며 결국 정신비만의 악순환은 반복된다. 다뤄야하는 정보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면서 ‘정보 과잉 불안증’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정보기획자인 리처드 사울 위먼은 그의 저서 <21세기 정보 뱅크>에서 정보 과잉 불안증(Information Overload Anxiety: IOA)이란 읽어야 할 정보의 양이 도가 지나쳐 소화불가능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나 과잉자극이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로, 모든 것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경향, 또는 정보 기술의 발달 속에서 새로운 정보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정보 불안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신순호, 2002).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의 발달 속도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업그레이드 강박증’이 생겨나고 있으며, 잠시라도 인터넷 통신망에서 벗어나 있으면 정보에 뒤처진다는 정보 불안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 폭증은 주의력 결핍 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증세와도 관계가 있다(Shenk, 1997). 쓸 만한 정보는 찾지 못하고 의미 없는 과잉정보를 처리하느라 오히려 결정적인 한 가지 정보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의력 결핍증’을 앓을 수 있다. 정보와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깊게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가고 즉각적으

로 반응하게 되어, 마음은 강한 자극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게 된다.

또한, 로이터의 연구(1996)는 정보 과잉이 동료와의 긴장과 근무 만족도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사 대상자의 42%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이상을 밝히고 있으며, 61%는 사회적 활동을 취소하거나 60%는 너무 지쳐 여가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보여 주었다. 로이터의 연구를 분석한 심리학자 루이스(Lewis)는 이러한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피로증후군(information fatigue syndrome or IFS)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Heylighen, 1999). 정보피로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심층 분석을 수행할 수 없고 결론을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나친 정보의 효과는 또한 불안, 잘못된 결정, 기억하고 회상하는 어려움, 주의력 감소를 포함하기도 한다(Reuters, 1996; Shenk, 1997). 정보 과잉에 대한 부정적 효과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스트레스에 기인된 바가 매우 크다.

나이트(Knight, 2005)는 글렌 윌슨(Glenn Wilson)의 실험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사람들이 이메일, 이동전화 및 문자 등을 끊임없이 받으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 보다 IQ가 감소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Knight, 2005). 또한 지속적인 메시지와 정보는 생산성을 증대시키기보다 업무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피 실험자 80명을 조용한 환경과 이메일과 전화가 지속되는 환경에 각각 노출하였을 때 평균 IQ가 10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리화나 사용자를 포함한 연구결과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자의 정보 환경은 정신적 예민함을 악화시켜 작업 능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나이트(Knight, 2005)는 글렌 윌슨(Glenn Wilson)의 연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보 과잉이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여성보다 남성들에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변화와 신체 질환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왔다(Heylighen, 1999). 헤이리헨(Heylighen, 1999)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영향은 정신적 효과를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과정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변화와 관련된 정서적 반응은 각성(arousal)이다. 각성 상태는 흥분(excitement)과 궁금함(wonder)과 같은 긍정적 감정과 혼란, 갈등,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각성이 지속될수록 관심은 줄어들고 피로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사람들이 새로운 자극에 대해 충분한 반응을 줄 수 없다면, 통제를 상실하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depression)과 무관심(apathy)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도록 한다.

머레이(Murray, 1998)는 경영자들에 대한 루이스(Lewis)의 사례연구를 인용하여 정보 과잉(information overload)이 소화불량, 심장질환, 고혈압 등과 관계있으며, 최소한 과민한 성격을 유발하거나 작업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크(Shenk)의 다년간 이뤄진 심리학적 실험결과(1997)는 데이터 스모그가 일련의 의학적 반응들, 즉 심장 혈관 압력 증가, 시각 약화, 만성피로증후군, 혼란, 좌절, 판단력 손상, 관용의 감소, 과신 등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논의처럼, 정보 과잉 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개인 생활 및 근무 만족도와도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매체 이용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보 과잉이 개인의 정서 상태와 육체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이 정보 과잉 정도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미디어정보를 활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 4 장 정보 특성과 사회 불확실성

제 1 절 정보 과잉시대의 정보

매스 미디어 구조에서는 전달자와 수신자의 역할과 기능이 고정되었지만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는 이들 사이의 관계가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박창호, 2004). 예를 들어, 인터넷 미디어 이용자들은 전달자이면서 수신자가 되어 과거의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형화된 방식으로부터 더욱 개인화되고(personalized), 서비스 지향적인(service-oriented) 방식의 정보활동을 야기하였다.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성장 그리고 이에 따른 정보 확산 속에서 정보의 특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400년 동안의 저널리즘 활동은 정보주기에서 지속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자본 투자와 사람들의 갈망을 유도할 수 있는 뉴스 형태들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으며, 가장 빠른 주기는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저널리즘의 종말로 언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언론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활동을 벗어난 많은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즉각적으로 공표되고 이를 언론이 취재하는 방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르윈스키 스캔들에 대한 스타위원회 보고서(the Starr Report) 발표를 접하기 위해 세계 시청자들은 컴퓨터 스크린을 촬영하고 있는 CNN의 영상을 바라봐야 했다. 정보주기의 가속화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뉴스를 생산하는 형태들(예, previews, leaks, briefings, “spin”)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틀리(Hartley, 2003)는 정보가 생성, 확산, 소비되는 정보주기(information frequency)가 급격히 짧아짐에 따라 가변적(volatil)이고 개인적(private) 공간에서 의미가 형성되며, 지식형태도 루머나 가십성 정보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정보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생산 속도(the speed of creation), 배분 주기(frequency of circulation),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정보 소비 기간(wavelength of consumption)에 따라 세 가지 정보 특성을 유형화하고 있다. 이러한 3요인들(정보 생산, 유포, 소비) 간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동인은 주로 경제적, 관념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 세 가지 유형화된 정보특성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정보 주기(frequencies)관점에 의한 정보 특성

정보 주기 (frequencies)	매체 (medium)	지식형태 (knowledge-type)	의미 (meanings)	의미 공간 (location)	시대구분 (historical periods)
High	영상 (screen)	루머(rumor) -gossip/information	가변적 (volatile)	개인적 (private)	포스트모던 (Postmodern)
Medium	활자 (page)	지식(knowledge) -fiction/science	논쟁적 (arguable)	사회적 (social)	모던 (Modern)
Low	석기 (stone)	신념(belief) -myth, religion	안정적 (stable)	공공적 (public)	전통적 (Premodern)

정보주기는 공간적 매체 기술에 의존적이기 보다 시간적 매체 기술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 소설, 과학은 루머, 가십, 정보보다 느린 정보주기를 가진 반면 신념, 신앙, 종교에 비해서는 빠른 주기를 가지고 있다. 정보 주기에 있어 미디어 뉴스는 역사적 유적에 남겨진 글 보다 제작과 전달 기간이 짧다. 뉴스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보주기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정보주기가 낮다는 것이 비효율성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는 루머, 가십, 정보와 같은 높은 정보주기의 형태로 보도될 수 있는 반면, 일반적 서술구조의 형태로 낮은 정보주기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정보주기가 짧아져 사람들은 영토(territory)보다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시민성은 영토의 개념에서 논의되기보다 정체성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주기가 가속화되면서 의미들은 안정적이고 공적인 것으로부터 가변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가변적 의미들은 개인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타자와의 관계보다 자기인식에 기초한 것을 의미한다. 논쟁적 의미는 집합적 사회생활과 관계되며 의사 결정자와 같은 권력과 관계되어 있는 반면, 안정적 의미는 공적 삶과 연결되며 마치 돌에 새겨진 문자와 같이 자연적 조건을 추구한다.

이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간적 공유를 바탕으로 가상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 민주주의의 고전적 매개체(인쇄매체, 정당, 국회)들은 무력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공중이자 매체 수용자이며, 시민이며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중요한 미디어가 사적영역과 상업적 오락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 구성의 의미화 과정에서도 가변적인, 구성된 의미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불확실성이 증대되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와 허구에 대한 우려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도사진은 디지털적으로 향상되고, 재연 프로그램들은 배우들에 의해 기만되고, 다큐멘터리들은 사람들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저널리즘 활동도 <표 4-2>와 같이 시대별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과거 정파저널리즘 활동을 보여준 언론은 산업화에 의해 대중 매체로 탈바꿈되면서 자본의 논리 속에서 운용되었지만, 현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미디어의 역동성을 보장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근대의 매스미디어 메시지는 뉴스가치 중심으로 표준화된 정보 상품을 구성하여 객관성의 포장에 길들여졌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분절화 된 개인들의 가변적 의미 생산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 저널리즘 관점이 메시지를 담아내는 매체 중심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떠한 매체인가의 문제보다 참여자 개인들이 어떠한 주장들을 담아내는지가 더욱 중요해진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표 4-2〉 저널리즘 특성의 변화

	전근대	모던	포스트모던
운용 원리	시민성(정치)	기업성(자본)	시민성(지식)
메시지 내용	주의, 주장, 당파적	표준화된 내용 (공정성/객관성...)	주의, 주장
표현 방식	표현, 연설, 평론	매체를 통한 전송, 발행 (전달자)	개인화된 표현, 연설
저널리즘	Speech	Media	Speech

이제 형태보다 내용중심적인 저널리즘 활동은 사회적 동의와 타협을 획득하는 노력보다 개인적 의미 공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담론의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사회에서 정보의 신뢰성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더욱 판단되고 평가될 수 있다.

제2절 정보 과잉과 사회 불확실성

현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변화하는 속도일 것이다. 정보의 생산, 유포, 소비되는 주기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의미의 불안정성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과학적,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혁신들이 순식간에 이뤄져, 누구도 이러한 것들을 따라잡기가 어려워 보인다. 일터에 있어서도 고용자들은 지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상황들에 적응해야 할 부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변화는 사람들과 조직에 긴장을 부과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변화의 가속화 현상과 심리학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래의 충격(future shock)” 증후군이라는 물리적 정신적 불안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1970). 전쟁과 재앙에 노출된 사람이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력감(helplessness)과 무능감(inadequacy)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Heylighen, 1999).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호전성(aggression), 불안감(anxiety),

냉담함(freezes)을 보여주듯, 급속한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Heylighen, 1999). 불특정인에 대한 호전성은 파괴행위(vandalism)와 폭력행위(hooliganism)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무력감과 절망은 정신적 피로 증후군을, 우울 증상은 무력감과 절망의 원인이 되거나, 마약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현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신경증인 불안감(anxiety)은 불면, 걱정, 긴장, 소화 장애 등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의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Heylighen, 1999). 예를 들어, 1991년 걸프전은 아랍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행기 이용객 감소를 보여주었고, 다른 대륙에 위치한 벨기에 사람들은 비상 식료품을 비축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 경제적(socio-economic) 수준에서 불안감은 실제 범죄율보다 높은 사회적 불안(insecurity)을 확산시키며, 투자보다 금융자산 선호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불안감은 행정기관이나 조직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기도 한다(Nye, Zelikow, & King, 1997). 더욱이 미디어는 부패 사례, 권력 남용, 잘못된 행위와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례 없이 생산, 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불신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1995년 미국에서 워싱턴포스트, 카이저 가족재단, 하버드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통계치를 통해 나이와 그의 동료들(Nye et al., 1997)은 매체 접촉과 정부에 대한 신뢰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신문구독 혹은 텔레비전 시청을 매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지 않거나 1-2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의 정보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매체 간 경쟁은 이러한 부정적, 자극적인 정보 수집이 더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팽창에 의해 이뤄진 과도한 정보화는 자신이 관심을 갖는,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관심 영역의 과도한 분절화(hyper-segmentation)를 초래하고(Chadwick, 2006), 이는 사회적 파편화(fragmentation)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와해된 공동체 속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의 통치체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상충

되는 규범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제도에 대한 견고한 지지가 약화되고 불신이 증대될 수도 있다(Nye et al., 1997).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은 기존 신념 체계의 와해와 더불어 증대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제공하는 신념 체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윤리와 가치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 과잉 현상으로 사회, 과학, 문화 등에서 이뤄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전통적 신념 체계들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기존 신념 체계가 권위를 잃고 있지만 새로운 신념이 수립되지 않아 사람들은 자연계의 질서(natural order)에 대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Heylighen, 1999). 전통적 세계관의 과편화는 상대주의적, 포스트 모던한 관점과 맞닿아 있기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결정적 가치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Vattimo, 1992). 이러한 사회는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의 사회 즉, 매스 미디어 지배적인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가능해 졌다. 매스 미디어는 포스트 모던한 사회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어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매스 미디어에 의해 가속화된 포스트모던 사회는 프랑스 철학자 리오타르(Lyotard)가 거대담론(grand narratives)이라 칭한 중심적인 관점(centralized perspective)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는 매체가 사회의 동질화(homogenization)를 초래한다는 아도르노(Adorno)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매스 미디어는 자본의 독점화 집중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팽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세계관(Weltanschauungen)을 확산시키고 있다(Vattimo, 1992). 물론 자신의 의견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정치적 해방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여기서 경제적 권력 등을 논하기보다 정보가 지속적으로 팽창을 요구하고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하부 문화에서 개인적 참여와 주장들이 증대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현실은 니체(Nietzsche)의 예언처럼 우화(fable)가 되고, 중심적인 조정(central coordination)없이 상호 경쟁 속에서 미디어에서 의해 순환되는 다원화된 이미지의

결과로서 구성되고 있다. 대화에는 여전히 언어적 문법(grammar)과 구문(syntax)이 있지만, 하나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억압되지는 않고, 다양성이 발휘되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찾고, 스스로를 드러내며, 타인에게 인식되어 진다.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한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들은 소속감(belonging)과 탈지향성(disorientation) 사이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사람들은 더욱 활발하게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어떠한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이슈에 따라 조직 결성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권력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권을 벗어난 정치활동을 하는 데 열성적이다.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어 투표참여율 저하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주목 받지 못했던 환경보호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에 대한 지지는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정치집단 혹은 정부에 대한 평가(신뢰, 관심, 성실성, 효율성 등)와의 관련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보 과잉과 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 미디어 레퍼토리의 형성여부도 조사해보고자 한다.

제 5 장 정보 과잉에 대한 수용자 인식 조사

제 1 절 조사 방법

1. 조사 설계

본 조사연구는 인터넷 조사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08년 11월 17일부터 1주일 동안 인터넷 서베어로 실시되었다. 조사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만 15-49세) 인구구성 비율을 고려한 층화표집을 통해 약 500명의 온라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성별, 연령별 층화표집을 위해 인구구성비(통계청 2007년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였다(아래 <표 5-1> 참조).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응답자에게 연구목적과 설문 응답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였고, 필터링 질문을 통해 연령과 성별 할당 비율에 맞는 응답자만 참여하도록 설문을 구조화하였다.

<표 5-1> 전국 인구 비율과 조사 참여자 수

구분	남 성			여 성			합 계		
	인구 비율(%)	참여자 비율(%)	참여자 수	인구 비율(%)	참여자 비율(%)	참여자 수	인구 비율(%)	참여자 비율(%)	참여자 수
15-19세	6.3	6	30	5.6	6	30	11.9	12	60
20대	13.6	12	60	12.7	12	60	26.3	24	120
30대	15.8	16	80	15.3	16	80	31.1	32	160
40대	15.6	16	80	15.1	16	80	30.7	32	160
합 계	51.3	50	250	48.7	50	250	100	100	500

본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에서 만 15세 미만과 만 50세 이상의 참여자를 배제하였다. 15세 미만은 연구 문항의 난이도와 설문 응답시간 측면에서, 만 50세 이상은 인터넷 이용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설문 응답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응답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온라인 조사업체는 약 3,300개의 메일을 자사 패널들에게 발송하였고 이들 중 설문참여자는 총 672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 응답률은 20.3%였다.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설문참여자 가운데 불성실 응답을 보여준 응답자를 제외시켜 최종 500명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표 5-2〉 정보 과잉 연구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 엠브레인의 패널 - 전국 지역의 만 15세-49세 남녀(고등학생 이상)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Web Survey)					
조사 표본 수	- 500명					
표본추출 방식	- 연령별, 성별 유의할당 추출					
조사 기입 방식	- 자기 기입식					
설문 응답시간	- 패널응답 20분 내외					
조사 기간	- 2008. 11. 17 ~ 2008. 11. 23					
응답 현황	- 조사 응답률(Response Rate): 20.3% (설문참여자수/메일발송수)					
	메일 발송	수신 확인	설문 참여	설문참여(672)		
				중도포기자	조사완료	조사대상제외
3,315	1,678	672	28	630	14	

2. 주요 변인의 측정

연구문제를 위한 측정으로 먼저, 정보 과잉에 대한 측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정보환경에 대한 인식으로서 정보 과잉을 인지하고 있는가의 측면

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 과잉에 따른 부담을 직접 경험해보았는가의 측면이다. ‘정보 과잉 인식’에 대한 측정은 3차원적 커뮤니케이션 과잉 척도(Chung & Coldhaber, 1991)를 사용하여, 정보환경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정보 과잉 부담 경험’에 대한 측정은 정보 과잉으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하는 정보처리에 따른 부담을 경험한 정도에 대한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정보 과잉이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척도가 사용되었다. 먼저, 우울 및 불안과 연관된 정서평가문항(이은영, 1991; Gotlib & Meyer, 1986; John, 1988)을 사용하여 정보 과잉이 개인의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정서관련 척도들은 우울·실망감과 연관된 정서(침울한, 슬픈, 무기력한, 실망스러운, 무가치한, 만족스러운, 뿌듯한, 행복한, 생동감 있는, 희망찬)와 불안·초조감과 연관된 정서(두려운, 걱정스러운, 긴장된, 초조한, 안절부절함, 안심되는, 침착한, 차분한, 거리낌 없는, 편안함)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정보 과잉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신체적 증상(소화기장애, 심장혈관장애, 동통, 불면증)을 파악하는 척도(김정인, 1997)가 8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명목적 수준의 측정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은 5점 척도를 통해 설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사회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 불안, 불확실성, 신뢰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 불안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두려움, 불안, 걱정 등에 대한 측정을 통해 평가되었다. 또한 사회적 불확실성은 한국사회의 문제 및 특성으로 지각되는 예측불가능성, 이동불가능성, 불공정성, 통제 불가능성, 불확실성, 불신에 대해 한국 사회의 특성을 측정한 기존 논의들(박수애, 송관재, 2005; 홍영호,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은 불확실하다.”, “우리사회는 예측하기 어렵다.” 등과 같은 6가지 문항들을 5점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는 각종 단체 및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분석되었다. 이를 위한 측정 대상은 조직체(현

법재판소, 국회, 법원/사법부, 행정부, 정부, 정당, 검찰, 경찰, 학교, 기업, 언론사, 시민단체)와 인물(대통령, 정치인, 종교지도자, 네티즌, 이웃, 지식인)로 나뉘어 측정되었다.

한편,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사람들은 숙의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보에 대한 신뢰, 전문성, 책임성, 선정성, 저속성 등을 평가하여,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정보인식의 차이 여부를 조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이 미디어를 통한 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정보 과잉에 대한 대응전략들을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제 2 절 표본의 특성 및 척도의 신뢰도

1. 표본의 특성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최종 500명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직업, 종교에 따라 분류되고, 명목 및 서열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성별 비율은 남녀 동일하며, 나이는 인구비율에 따라 30대와 40대가 각각 32%, 20대와 10대가 각각 24%와 12%였다. 학력에 있어서는 조사 참여자 가운데 대졸이 5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고졸(29.6%), 중졸이하(9.6%), 대학원이상(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직업은 사무/기술직 129명(25.8%), 학생 118명(23.6%), 전업 주부 79명(15.8) 등의 순이었으며, 소득수준은 월 300만원 수준 113명(22.6%), 200만원 수준 107명(21.4%), 400만원 수준 87명(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약 47.4%인 237명 이었고, 3대 종교(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약 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조사된 통계청의 종교인구 구성비 결과인 무종교인 46.5%, 3대 종교인 52%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표 5-3〉 설문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분류	사례수	퍼센트
성별	남자	250	50.0
	여자	250	50.0
나이	만15-19세	60	12.0
	만20-29세	120	24.0
	만30-39세	160	32.0
	만40-49세	160	32.0
학력	중졸 이하	48	9.6
	고졸	148	29.6
	대졸	271	54.2
	대학원 이상 졸	33	6.6
소득(월)	100만 원 이하	14	2.8
	101~200만원	84	16.8
	201-300만원	107	21.4
	301-400만원	113	22.6
	401-500만원	87	17.4
	501-700만원	78	15.6
	모름/무응답	17	3.4
직업	자유/전문직	32	6.4
	경영/관리직	21	4.2
	사무/기술직	129	25.8
	판매/영업/서비스직	31	6.2
	기능/작업직/단순노무직	23	4.6
	자영업	35	7.0
	농/임/어/축산업 종사자	1	0.2
	전업 주부	79	15.8
	학생	118	23.6
	기타	19	3.8
	무직	12	2.4
종교	기독교	85	17.0
	불교	127	25.4
	천주교	46	9.2
	기타	5	1.0
	무교	237	47.4

2. 분석 척도의 신뢰도

주요 측정변인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허 알파(Cronbach α)를 이용한 신뢰도 측정은 본 조사에 사용된 척도가 대체로 신뢰할 만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척도별 신뢰도 분석 값에 따르면, 정서적 척도 가운데 우울·실망감 척도는 .843이며, 불안·초조 척도는 .815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과잉 척도 .768, 사회불확실성 .826, 사회감정 .825, 신체증상 .881로 나타나 본 연구의 추가 분석에 활용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표 5-4〉 분석 척도 및 신뢰도

척도	척도 측정 문항	Cronbach α
정서 (우울/실망)	10문항: 침울한, 슬픈, 무기력한, 실망스러운, 무가치한, 만족스러운, 뿌듯한, 행복한, 생동감 있는, 희망찬	.843
정서 (불안/초조)	10문항: 두려운, 걱정스러운, 긴장된, 초조한, 안절부절함, 안심되는, 침착한, 차분한, 거리낌 없는, 편안한	.815
정보 과잉	나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편지, 대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768
	나는 나의 업무나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	
	나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하는 정보를 자주 받고 있다.	
	내가 받은 정보가 나에게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해 많은 설명이 필요한 정보를 자주 받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정보가 모호한 경우가 자주 있다.	
	모호한 정보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토론을 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내고 있다.		

척도	척도 측정 문항	Cronbach α
사회 불확실성	우리 사회는 예측하기 어렵다.	.826
	우리 사회에서는 노력해도 사회 계층이 올라갈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원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은 불확실하다.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나 조직을 믿을 수 없다.	
사회 불안감	3문항: 두렵다. 걱정스럽다. 불안하다.	.825
신체증상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자주 깬다.	.881
	잠을 자기가 힘들다.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팔다리가 쭈시고 아프다.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이 쓰리고 아프다.	
	숨이 가쁘고 답답하다.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제3 절 주요 변인들의 측정 결과

1. 정보과잉

가. 정보과잉 인식

정보 과잉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3차원적 커뮤니케이션 과잉 척도(Chung & Coldhaber, 1991)를 이용하여, 정보환경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9개의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

로 물었다. 제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편지, 대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나는 나의 업무나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 (3) 나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 (4) 나는 결정을 내려야하는 정보를 자주 받고 있다, (5) 내가 받은 정보가 나에게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해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다, (6) 나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7)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정보가 모호한 경우가 자주 있다, (8) 모호한 정보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토론을 한다, (9)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내고 있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각 문항에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라고 묻고, 이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응답 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5> 정보과잉 인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보과잉 종류	(단위: %)	
	평 균	표준편차
1) 나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편지, 대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3.93	0.82
2) 나는 나의 업무나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	3.54	0.79
3) 나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	3.47	0.76
4) 나는 결정을 내려야하는 정보를 자주 받고 있다	3.29	0.78
5) 내가 받은 정보가 나에게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해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다	3.41	0.78
6) 나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3.42	0.76
7)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정보가 모호한 경우가 자주 있다	3.31	0.75
8) 모호한 정보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토론을 한다	3.09	0.81
9)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내고 있다	3.11	0.88

나. 정보 과잉 부담

‘정보 과잉 부담’에 대한 측정은 정보 과잉으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하는 정보처리에 따른 부담을 경험한 정도에 대한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제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 나는 이메일, 메신저, 전화 등으로 인해 업무나 공부에 방해를 받고 있다, (3) 나는 많은 정보로 인해 정보처리에 부담을 느낀다, (4)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워 졌다, (5)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세상의 정보량에 비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각 문항에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라고 묻고, 이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응답 결과는 <표 5-6>과 같다.

<표 5-6> 정보과잉 부담 경험

정보과잉 종류	(단위: %)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91	.85
2) 나는 이메일, 메신저, 전화 등으로 인해 업무나 공부에 방해를 받고 있다.	2.87	.99
3) 나는 많은 정보로 인해 정보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3.08	.84
4)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3.25	.95
5)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46	.82
6) 세상의 정보량에 비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71	.92

다. 정보 과잉 인식과 정보 과잉 부담

정보환경에 대해 정보 과잉이라고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정보 과잉에 의한 정보처리의 부담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증세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보 과잉 인지와 정보 과잉 부담 경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정보 과잉 인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보처리에 부담을 느끼거나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정보 과잉 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정보 과잉과 정보 과잉 부담 경험 간의 상관관계

	정보 과잉	정보 부담
정보 과잉	1	
정보 부담	.346**	1

** p<.001(양방향 검증)

2. 미디어 이용 행태

가. 미디어 이용량

미디어 이용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다음은 매체(신문, TV, 인터넷)를 이용하는데 보내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각 매체 이용시간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문을 제시한 뒤, 다음의 5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1) 평균적으로 하루에 지상파 텔레비전(KBS, MBC, SBS)을 시청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십니까?, (2) 평균적으로 하루에 케이블TV(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채널) 또는 위성 TV를 시청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십니까?, (3) 평균적으로 하루에 종이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을 보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4) 평균적으로 하루에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5) 평균적으로 하루에 라디오를 이용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가 직접 이용시간을 적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사람들의 하루 미디어 이용량은 인터넷이 평균 205.30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상파 텔레비전 139.93분, 케이블TV/위성TV 85.21분 순으로 나타났다. 각 미디어 항목별 이용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8〉에 제시되어 있다.

〈표 5-8〉 미디어별 이용시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평균적으로 하루에 <u>지상파 텔레비전(KBS, MBC, SBS)</u> 을 시청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십니까?	139.93	87.84
2) 평균적으로 하루에 <u>케이블TV(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채널) 또는 위성 TV</u> 를 시청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십니까?	85.21	74.41
3) 평균적으로 하루에 <u>종이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u> 을 보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32.24	31.59
4) 평균적으로 하루에 <u>인터넷</u> 을 이용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205.30	130.90
5) 평균적으로 하루에 <u>라디오</u> 를 이용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51.84	8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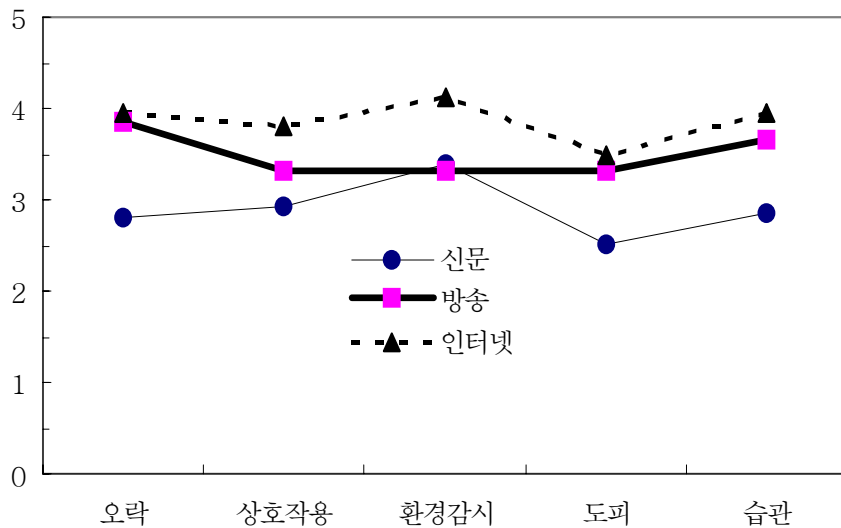
나. 미디어 이용동기

미디어 이용동기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미디어 이용동기 측정 문항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12문항을 제시하였다; (1) 시간 때우기 좋아서, (2)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3) 본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 있어서, (4)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5) 하고 있는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6)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7)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일이므로, (8)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9) 외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에, (10)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만나기 위해, (11) 개인적 흥미를 충족하기 위해, (12)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12개의 문항에 대하여 신문, TV방송, 인터넷의 이용동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각 매체별로 묻고,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동기는 ‘오락’, ‘상호작용’, ‘환경감시’, ‘도피’, ‘습관’이라는 5개의 공통요인으로 압축된다.

매체 유형별 정보 이용 동기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1]에 제시되어 있다. 인터넷 매체는 제시된 모든 동기들에 대해 신문, 방송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신문은 ‘환경감시’ 동기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신문 구독 및 열독자의 감소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다기능적인 요소는 기존 신문, 방송의 역할을 포괄하는 부분이 있어 매체이용 동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5-1] 매체별 정보 이용 동기



3. 사회적 인식

가. 사회불안감

먼저, 사회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9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1) 화난다, (2) 두렵다, (3) 흐뭇하다, (4) 안타깝다, (5) 희망을 느낀다, (6) 걱정스럽다, (7) 자랑스럽다, (8) 불안하다, (9) 좌절감 느낀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현상 전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에 제시된 구체적인 감정단어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라고

제시한 뒤, 이에 대해 ‘매우 그렇다’(1점), ‘조금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별로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문항들 가운데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3), (5), (7)번 문항의 경우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감정의 부정적인 정도가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각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9>에 제시되어 있다.

<표 5-9> 사회적 감정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 항	평균	표준편차
1) 화난다	2.20	.93
2) 두렵다	2.41	.97
3) 흐뭇하다	2.39	.88
4) 안타깝다	2.11	.90
5) 희망을 느낀다	2.69	.93
6) 걱정스럽다	1.98	.92
7) 자랑스럽다	2.63	.90
8) 불안하다	2.09	.91
9) 좌절감 느낀다	2.54	.98

사회적 감정 중에서 두려움, 걱정, 불안과 같은 감정은 ‘사회적 불안감’으로 묶어 볼 수 있는데, 이들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는 .82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5-10> 사회적 불안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사회불안감	2.16	.80

나. 사회불확실성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6개 문항이 제시되었다; (1) 우리 사회는 예측하기 어렵다, (2) 우리 사회에서는 노력해도 사회 계층이 올라갈 수 없다, (3) 우리 사회에서는 원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4) 우리 사회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 (5)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은 불확실하다, (6)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나 조직을 믿을 수 없다. 이들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동의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제시된 곳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4점), ‘보통이다’(3점), ‘조금 동의하다’(2점), ‘매우 동의하다’(1점). 이들 6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826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다. 따라서 이들 6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불확실성 척도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불확실성 관련 6문항 모두의 평균이 2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은 것임을 고려할 때, 사회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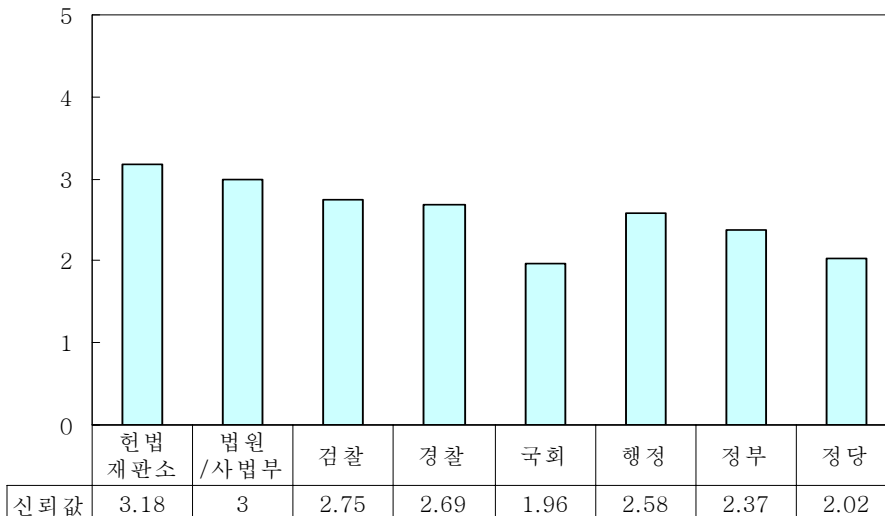
〈표 5-11〉 사회 불확실성 측정 항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1) 우리 사회는 예측하기 어렵다	2.15	.81
2) 우리 사회에서는 노력해도 사회 계층이 올라갈 수 없다	2.47	.98
3) 우리 사회에서는 원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2.26	.88
4) 우리 사회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	2.14	.82
5)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은 불확실하다	2.25	.89
6)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나 조직을 믿을 수 없다.	2.29	.84

다. 국가기관 및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국가 조직에 대한 신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에게 8개의 국가 조직을 제시하였다; (1) 헌법재판소, (2) 국회, (3) 법원/사법부, (4) 행정부, (5) 정부, (6) 정당, (7) 검찰, (8) 경찰. 이들 8개 항목에 대한 신뢰 정도를 다음의 5점 척도 상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신뢰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조금 신뢰한다, (5) 매우 신뢰한다. 국가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인 [그림 5-2]에 의하면, 헌법재판소(3.18)와 법원/사법부(3.0)가 상대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은 조직에 해당되고, 정치영역에 속하는 국회(1.96)와 정당(2.02) 조직은 가장 적은 신뢰 값을 보여주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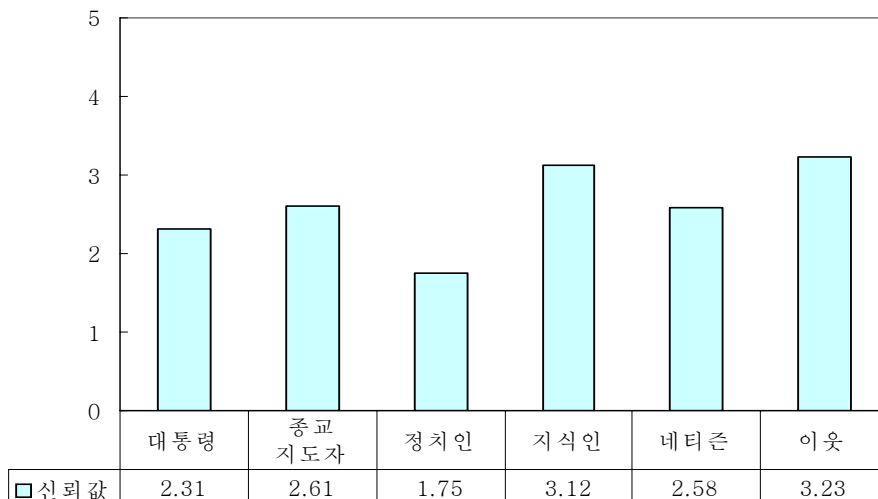
(그림 5-2) 국가 조직에 대한 신뢰 정도(5점 기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측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추가 분석하였다. 대통령, 정치인, 종교지도자, 네티즌, 이웃, 지식인 등 6개의 항목에 대해 5점 척도 상에 사람들의 신뢰 정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신뢰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조금 신뢰한다, (5) 매우 신뢰한다. 대인 신뢰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5-3]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정치인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1.75점이며 뒤이어 대통령(2.31)과 종교지도자(2.61) 신뢰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웃(3.23)이나 지식인(3.12)에 대한 신뢰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관에 대한 분석에서 정치/행정 분야의 신뢰도가 가장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치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그림 5-3]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5점 기준)



4. 개인적 정서 및 신체 증상

가. 개인적 정서

개인의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개의 정서평가문항(이은영, 1991; Gotlib & Meyer, 1986; John, 1988)을 사용하여 개인의 정서를 불안·초조감 요인과 우울·실망감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불안·초조감은 ‘두려운’ ‘걱정스러운’ ‘긴장된’ ‘초조한’ ‘안절부절함’ ‘안심되는’ ‘침착한’ ‘차분한’ ‘거리낌 없는’ ‘편안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실망감은 ‘침울한’ ‘슬픈’ ‘무기력한’

‘실망스러운’ ‘무가치한’ ‘만족스러운’ ‘뿌듯한’ ‘행복한’ ‘생동감 있는’ ‘희망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에게 요즈음 정서 상태에 대해 제시된 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1) 아주 조금 있다, (2) 조금 있다, (3) 보통이다, (4) 많이 있다, (5) 아주 많이 있다. 이들 항목들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항목에 대하여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상태의 부정적인 정도가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각 요인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12> 개인적 정서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우울실망감	2.99	.62
불안초조함	2.96	.58

나. 스트레스 관련 신체 증상

정보 과잉이 개인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면증, 동통, 소화기장애, 심장혈관장애와 관련된 8문항들을 제시하였다; (1)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자주 깬다, (2) 잠을 자기가 힘들다, (3)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4) 팔다리가 쭈시고 아프다, (5)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된다, (6) 속이 쓰리고 아프다, (7) 숨이 가쁘고 답답하다, (8)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이들 문항에 대해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일어난 정도를 5점 척도 하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1) 전혀 없었다, (2) 그렇지 않았던 편이다, (3) 그럴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4) 대체로 그런 편이다, (5) 자주 그랬다. 이들 각각 문항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5-13〉 신체증상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1)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자주 깬다	3.08	1.10
2) 잠을 자기가 힘들다	3.27	1.07
3)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2.93	.98
4) 팔다리가 쭈시고 아프다	3.10	1.01
5)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된다	3.19	1.05
6) 속이 쓰리고 아프다	3.29	1.02
7) 숨이 가쁘고 답답하다	3.37	1.02
8)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3.41	.95

제 6 장 미디어 이용행태와 정보 과잉 인식

제 1 절 미디어 이용행태와 정보과잉 인식

1. 이용 매체 수와 정보과잉

미디어 과잉 현상이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넘어설 정도의 많은 커뮤니케이션 과잉 현상을 조성한 것으로 여러 학자들(Newman & Pool, 1986; Wurman, 1990/1993; Reuters, 1996; Shenk, 1997)은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위하여, 미디어 과잉 현상이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아래 <표 5-5>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매체 수는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과 정적(positive)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나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매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 매체 수와 이용 시간 측면에서 미디어 과잉 환경은 사람들의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 매체 수 및 이용시간과 정보 과잉 간의 상관관계

	정보 과잉
이용 매체 수	.120**
매체 이용 시간	.111*

* $p < 0.05$, ** $p < 0.01$, 양방향 검증.

2. 매체 유형과 정보 과잉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미디어 이용이 정보 과잉 인식을 얼마나 설명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문과 인터넷 이용시간이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 변수로 확인되었다. 인터넷이용량의 표준화계수 베타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미디어의 이용을 통제하였을 경우 인터넷 이용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신문이용량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정보 과잉에 대한 미디어 이용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255	.053		60.852	.000
방송이용시간	.000	.000	-.021	-.459	.647
신문이용시간	.001	.001	.094	2.073	.039
인터넷이용시간	.001	.000	.141	3.129	.002
라디오이용시간	.000	.000	.029	.642	.521

3. 매체 이용 동기와 정보 과잉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다섯 개의 매체 이용 동기들(오락, 상호작용, 환경감시, 도피, 습관)을 중심으로 매체별 정보 이용 동기의 차이가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매체 이용 동기들 가운데 ‘오락’과 ‘환경감시’ 동기가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을 설명해주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정적 회귀계수는 오락과 환경감시를 위해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정보 과잉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6-3〉 정보 과잉에 대한 매체이용 동기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1.957	.167	11.753	.000
오락	.148	.054	2.755	.006
환경감시	.166	.052	3.171	.002
습관	-.003	.040	-.072	.942
상호작용	.095	.051	1.863	.063
도피	.003	.033	.087	.930

F(5, 494)=15.564, $p < .001$, $R^2=.136$.

제 2 절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정보 과잉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정보 과잉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6-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이, 학력, 소득은 정보 과잉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많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은 증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나이가 많아지거나, 학력이 낮아지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경제자본(economic capital)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새로운 정보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속에서 정보 흐름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젊거나, 학력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과잉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속성 가운데 성별은 정보 과잉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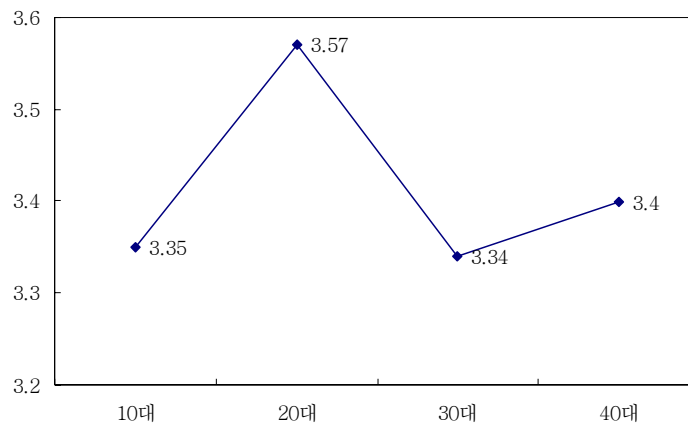
〈표 6-4〉 정보 과잉과 사회인구학적 속성 변인의 상관관계

	정보 과잉	나이	성별	학력	소득
정보 과잉	1				
나이	-.100(*)	1			
성별	-.050	-.037	1		
학력	.140(***)	.335(***)	-.112(*)	1	
소득	.095(*)	.133(**)	-.102(*)	.243(***)	1

* p<0.05, ** p<0.01, *** p< .001, 양방향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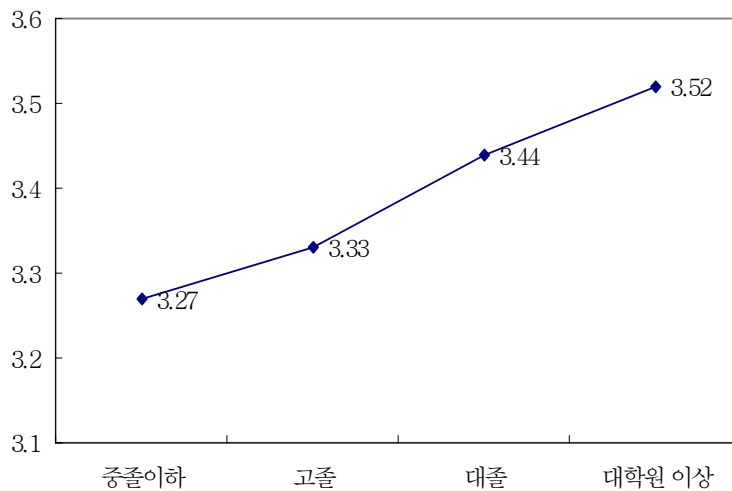
정보 과잉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던 나이를 연령대(10-40대)로 구분하여 정보 과잉의 인식이 변화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6-1]이 보여주듯, 나이를 4 연령대로 분류한 경우에 있어 20대의 정보 과잉 인식(3.5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대(3.35) 순이었다. 반면, 30대의 정보 과잉 인식(3.3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정보 과잉 인식이 높은 것은 20대의 매체 이용 시간이 가장 높은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된 자료에서 20대의 전체 매체 이용 시간은 약 108분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의 약 84분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 연령대별 정보 과잉 인식 변화



한편, 정보 과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던 학력수준별 정보 과잉 인식 변화를 선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력별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은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고졸, 중졸이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정보 처리 능력을 넘어선 지나친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대졸의 71% 이상 그리고 대학원 이상 학력의 87% 이상이 30대와 40대 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가운데 이러한 정보 과잉 환경이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 6-2] 학력별 정보 과잉 인식 변화



한편, 사회인구학적 속성 변인들이 정보 과잉 인식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6-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서로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학력과 나이만이 정보 과잉 인식 정도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경우 .108의 비표준화 계수 값을 보여줌으로써($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보여준다. 나이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경우 -.008의 비표준화 계수 베타 값을 보여줌으로써 ($p < .001$), 나이가 어릴수록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소득수준이나 성별은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할 때 정보 과잉 인식 정도의 예측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6-5〉 정보 과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속성의 영향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197	.121		26.500	.000
나이	-.008	.002	-.166	-3.537	.000
성별	-.036	.042	-.039	-.861	.390
학력	.108	.030	.174	3.616	.000
소득	.024	.015	.071	1.545	.123

$F(4, 478)=6.495, p < .001, R^2=.052.$

제 3 절 정보과잉 인식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력

사회인구학적 속성 변인에 미디어 이용량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정보과잉 인식 변인을 어느 정도 더 설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6-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속성 변인의 R제곱값이 .054이므로 정보과잉 인식 변인을 5.4%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미디어 이용량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R 제곱값이 .073으로 정보과잉 인식 변인의 설명력이 약 2%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는 미디어 이용량보다는 사회인구학적 속성 변인이 정보과잉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6〉 정보과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속성 및 미디어 이용량

	모형 I				모형 II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18	.12		26.20	3.07	.13		23.91***
성별	-.04	.04	-.04	-.84	-.04	.04	-.05	-1.01
학력	.11	.03	.18	3.76***	.10	.03	.17	3.29***
월소득	.02	.01	.07	1.53	.03	.02	.08	1.76
나이	-.01	.00	-.17	-3.62***	-.01	.00	-.17	-3.39**
지상파이용량					.00	.00	-.01	-.10
케이블이용량					.00	.00	.05	1.00
신문이용량					.00	.00	.06	1.39
인터넷이용량					.00	.00	.11	2.32*
라디오이용량					.00	.00	.04	.80
R ²	.054				.073			
F	6.758***				4.160***			

* p<.05, **p<.01, ***p<.00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미디어 이용 변인들 가운데 정보과잉 인식 정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학력과 나이이고, 그 다음이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량이다. 즉, 사회인구학적 속성 변인에 있어서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정보과잉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 변인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정보과잉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7 장 정보 과잉이 사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정보 과잉과 사회불안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현상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정보과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화남, 두려움, 안타까움, 불안, 좌절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정보과잉 인식 및 정보과잉 부담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흐뭇함, 희망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정보과잉 인식이나 정보과잉 부담 경험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정보과잉 인식이 높은 사람은 화가 나거나 안타까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정보과잉 부담 경험을 한 사람은 화남, 두려움, 안타까움, 불안,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보과잉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단순한 정보과잉 인식보다는 정보과잉의 부담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7-1〉 정보과잉과 사회감정의 상관관계

	정보과잉인식	정보과잉부담	화남	두려움	흐뭇함	안타까움	희망	걱정	자랑스러움	불안	좌절
정보과잉인식	1										
정보과잉부담	.346 (**)	1									
화남	.109 (*)	.132 (**)	1								
두려움	.061	.089 (*)	.522 (**)	1							
흐뭇함	.013	-.001	.376 (**)	.351 (**)	1						
안타까움	.109 (*)	.143 (**)	.528 (**)	.455 (**)	.357 (**)	1					
희망	-.006	-.016	.292 (**)	.306 (**)	.527 (**)	.260 (**)	1				
걱정	.061	.083	.560 (**)	.568 (**)	.426 (**)	.553 (**)	.303 (**)	1			
자랑스러움	.034	.091 (*)	.304 (**)	.378 (**)	.608 (**)	.291 (**)	.594 (**)	.350 (**)	1		
불안	.031	.114 (*)	.542 (**)	.609 (**)	.398 (**)	.577 (**)	.298 (**)	.660 (**)	.300 (**)	1	
좌절	.085	.165 (**)	.487 (**)	.528 (**)	.300 (**)	.463 (**)	.340 (**)	.442 (**)	.340 (**)	.484 (**)	1

이들 중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현상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감정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정보 과잉 및 과잉에 따른 정보 처리 부담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회불안 척도는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과는 통계적 유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감 척도와는 부적인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낄수록 사회적 불안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 과잉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단순한 정보 과잉 인식보다는 정보 과잉의 부담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7-2〉 정보 인식(정보 과잉, 정보 부담)과 사회 불안의 상관관계

	사회 불안	정보 과잉	정보 부담
사회 불안	1		
정보 과잉	-.059	1	
정보 부담	-.111(*)	.346(***)	1

* $p < 0.05$, ** $p < 0.01$, *** $p < .001$, 양방향 검증.

제2절 정보 과잉과 사회 불확실성

정보 과잉이 야기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보 과잉이나 정보 부담감이 사회 불확실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6개 문항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이들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불확실성 척도로 사용되었다. 부정적 의미에 대해 역코딩이 이뤄진 후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불확실성과 정보 과잉 인식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89$, $p = .048$). 아래 〈표 7-3〉을 살펴보면, 이들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negative)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불확실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처리에 대한 스트레스, 필요정보습득의 어려움, 자신의 정보량 부족 등과 같은 정보 과잉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불확실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 = -.112$, $p = .012$). 이러한 결과들은 사람들 주위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사회 불확실성의 지각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처리 능력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거나 정보 과잉에 따른 부담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더욱 불확실한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표 7-3〉 정보 과잉과 사회 불확실성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정보 과잉	사회 불확실성	정보 과잉부담
정보 과잉	1		
사회 불확실성	-.089(*)	1	
정보 과잉부담	.346(**)	-.112(*)	1

* p<0.05, ** p<0.01, 양방향 검증.

제3절 정보 과잉과 사회 신뢰도

사회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행정기관이나 국가 조직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기도 한다고 나이와 그의 동료들은 밝힌 바 있다(Nye, Zelikow, King, 1997).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적 불안이나 불확실이 국가 조직에 대한 신뢰도와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8개의 국가 조직에 대한 신뢰 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국가 조직 관련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 국가조직에 대한 8개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KMO(Kaiser-Meyer-Olkin) 값은 .860 그리고 Bartlett 검정 값의 유의확률은 .001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가 요인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요인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사법조직과 관련된 대상들로서 헌법재판소, 법원/사법부, 검찰, 그리고 경찰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정치행정 조직과 관련된 대상들인 국회, 행정부, 정부, 정당으로 묶여졌다.

〈표 7-4〉 국가조직 신뢰 정도에 대한 요인분석

조직 신뢰 대상	요인 1	요인 2
	사법조직	정치행정조직
헌법재판소	.847	.114
사법부	.829	.210
경찰	.615	.233
검찰	.798	.323
국회	.176	.868
정당	.136	.860
정부	.428	.674
행정	.547	.597
아이겐 값	4.307	1.163
변량%	53.849	14.543
신뢰도(Cronbach's α)	.830	.839
총변량(%)	68.383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국가 조직과 관련되어 추출된 두 요인(정치행정, 사법조직)이 매체이용과 개인이 가지는 사회인식(사회불안, 사회 불확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이 이뤄졌다. 나이와 그의 동료들(Nye et al., 1997)은 미디어 이용과 정부에 대한 신뢰와의 관계에 대해, 신문과 방송 이용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새로운 매체 경쟁 환경이 부정적, 자극적 정보 수집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량 증대는 정부 조직에 대한 신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결과인 〈표 7-5〉에 따르면, 미디어 이용시간이 정치행정 및 사법조직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미디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문은 정치행정 조직과, 그리고 인터넷은 정치행정 조직과 사법조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의 관계를 보면, 신문 이용이 증대되면 정치

행정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만,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질수록 정치행정 조직과 사법 조직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조직 신뢰도에 대한 평가는 미디어 유형별로 논의될 필요성을 제기해주고 있다. 또한 타 매체에 비해 인터넷 매체는 국가 조직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인터넷 매체가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탈규제적 담론형성이 이뤄지는 공간 기능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텔레비전이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부분적으로 파괴시킨다는 주장(Bennett, et al., 1999)과 달리, 디지털시대 신뢰 파괴의 매개체는 인터넷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7-5〉 사회인식(불안, 불확실) 및 미디어 이용 시간이 조직신뢰에 대한 상관관계

	정치/행정 조직	사법 조직	방송 이용시간	신문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시간	라디오 이용시간	사회 불안	사회 불확실
정치/행정 조직	1							
사법조직	.602(***)	1						
방송 이용시간	-.014	-.035	1					
신문 이용시간	.114(*)	.070	.166(***)	1				
인터넷 이용시간	-.090(*)	-.138(**)	.159(***)	-.080	1			
라디오 이용시간	.016	.001	.060	.097(*)	-.006	1		
사회불안	.342(***)	.255(***)	-.005	.044	-.028	-.017	1	
사회불확실	.405(***)	.346(***)	-.084	.031	-.100(*)	.064	.531(***)	1

* p<0.05, ** p<0.01, *** p<.001, 양방향 검증.

한편, 국가 조직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불안 및 불확실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Nye et al., 1997). 사회적 불안 그리고 불확실과 같은 부정적 사회 인식이 국가 조직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상관관계 분석이 이뤄졌다. 이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 불안 및 불확실은 정치행정 조직과 사법 조직 모두에게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불안이나 불확실감을 많이 느낄수록 국가 조직(정치행정적,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불안 및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국가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국가의 다양한 조직에 대한 신뢰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측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추가 분석하였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미디어 이용량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신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통령, 종교지도자, 지식인, 정치인과 같은 사회 지도층 인물 그리고 일반인인 이웃과 네티즌으로 제한하여 측정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유의미한 경우는 라디오 이용량을 제외한 방송, 신문, 인터넷 별로 평가 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람들이 방송을 많이 시청할수록 종교지도자와 지식인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지식인, 이웃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방송을 적게 시청할수록 우리 사회의 종교 지도자와 지식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할수록 대통령, 지식인, 이웃에 대한 신뢰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반면, 신뢰 대상인 사람과 매체이용이 정적 관계를 가진 것은 인터넷과 네티즌 그리고 신문과 대통령의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신뢰가 증대함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량이 많을수록 다른 참여자에 대해서 신뢰를 높여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보면, 인터넷 이용은 미디어

참여자인 네티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신문 이용량 증가는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국가 조직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신문 이용량은 정치/행정 조직에 대한 신뢰와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신문 이용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사회조직 및 인물에 대한 신뢰를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7-6〉 특정 인물에 대한 신뢰도와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한 상관관계

	종교지도자	대통령	정치인	네티즌	이웃	지식인
방송 이용시간	-.097(*)	.009	.013	-.005	-.087	-.151(***)
신문 이용시간	.054	.133(**)	.038	-.055	.050	-.046
인터넷 이용시간	-.060	-.129(**)	-.077	.118(**)	-.089(*)	-.108(*)
라디오 이용시간	.066	.055	.006	.051	.030	-.032

* p<0.05, ** p<0.01, *** p< .001, 양방향 검증.

사회인식(사회 불안, 사회 불확실)이 특정 인물에 대한 신뢰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인 아래 〈표 7-7〉에 의하면, 사회에 대한 인식은 네티즌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물에 대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불안하고 불확실할수록 분석된 특정 인물들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불안과 불확실성은 국가 조직의 경우와 같이 인물들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7-7〉 특정 인물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인식의 상관관계

인물 사회인식	종교지도자	대통령	정치인	네티즌	이웃	지식인
사회 불안	.119(**)	.326(***)	.305(***)	.032	.095(**)	.060
사회 불확실	.171(***)	.352(***)	.365(***)	.048	.143(***)	.154(***)

* $p < 0.05$, ** $p < 0.01$, *** $p < .001$, 양방향 검증.

제4절 정보 과잉과 정보 신뢰

정보 과잉과 정보 과잉으로 인한 처리에 부담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보 과잉과 정보 부담이 정보에 대한 신뢰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인 〈표 7-8〉이 보여주듯, 정보 과잉 인식은 매체들의 정보신뢰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정보 과잉에 대한 정보 처리 부담의 변인은 신문정보 신뢰도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방송정보 신뢰도 및 인터넷정보 신뢰도, 그리고 전체 미디어 정보 신뢰도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정보 과잉에 따른 정보 처리 부담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방송정보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전체 미디어 정보에 대한 신뢰수준 또한 정보처리 부담 정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정보 과잉 부담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전체 미디어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7-8〉 정보 인식(과잉, 부담)과 매체별 정보신뢰도 상관관계

정보 신뢰도 \ 정보 인식	정보 과잉	정보 부담
신문 정보	.001	.055
방송 정보	.013	-.138(**)
인터넷 정보	-.013	-.171(***)
전체 매체 정보	.000	-.124(**)

* $p < 0.05$, ** $p < 0.01$, *** $p < .001$, 양방향 검증.

제 8 장 정보 과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제 1 절 정보 과잉과 개인적 정서

정보 과잉이 개인의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개의 정서 평가문항(이은영, 1991; Gotlib & Meyer, 1986; John, 1988)을 사용하여 개인의 정서를 불안·초조감 요인과 우울·실망감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불안·초조감은 ‘두려운’ ‘걱정스러운’ ‘긴장된’ ‘초조한’ ‘안절부절한’ ‘안심되는’ ‘침착한’ ‘차분한’ ‘거리낌 없는’ ‘편안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실망감은 ‘침울한’ ‘슬픈’ ‘무기력한’ ‘실망스러운’ ‘무가치한’ ‘만족스러운’ ‘뿌듯한’ ‘행복한’ ‘생동감 있는’ ‘희망찬’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초조함과 우울·실망감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정서와 정보 과잉 인식 및 정보 과잉 부담 경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더니, 단순한 정보 과잉 인식 차원에서는 불안감이나 우울함과 같은 개인적 정서 요인들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 과잉 부담 경험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불안감과 우울함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정보 과잉에 따른 부담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불안·초조감이나 우울·실망감이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보 부담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도록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정보 과잉으로 인한 부담감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불안·초조감이나 우울·실망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8-1〉 정보환경과 개인적 정서간의 상관관계

	정보 과잉	정보 부담감	우울/실망감	불안/초조함
정보 과잉	1			
정보 부담감	.346(***)	1		
우울/실망감	-.011	-.103(*)	1	
불안/초조함	-.012	-.155(***)	.810(***)	1

* $p < 0.05$, ** $p < 0.01$, *** $p < .001$, 양방향 검증.

제2절 정보 과잉과 신체적 증상

정보 과잉이 개인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면증, 동통, 소화기장애, 심장혈관장애와 관련된 8문항들을 측정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 관련 문항들을 역코딩한 후 평균 값을 구하고 이를 정보 과잉과 정보부담과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인 〈표 8-2〉에 따르면, 정보환경(정보 과잉, 정보부담)과 개인의 신체적 증상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 과잉을 높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정보 과잉 부담을 많이 경험할수록 신체적 불안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 정보환경(정보 과잉, 정보부담)과 신체적 증상의 상관관계

	정보 과잉	정보부담	신체증상
정보 과잉	1		
정보부담	.346(***)	1	
신체증상	-.127(**)	-.166(***)	1

* $p < 0.05$, ** $p < 0.01$, *** $p < .001$, 양방향 검증.

좀 더 구체적인 신체적 증상과 정보 과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8-3〉과 같다. 불면증에 있어서는 정보과잉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소화

기장애와 심장혈관장애에 있어서는 정보과잉 부담을 많이 경험한 사람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8-3〉 정보 과잉과 신체적 증상 상관관계

	정보\ 과잉	정보 부담	자주 깁다	잠자기 힘듦	머리 무거움	팔다리 통증	소화 불량	속쓰림	숨가쁨	심장 마구뿔
정보 과잉	1									
정보 부담	.346 (**)	1								
자주 깁다	.089 (*)	.077	1							
잠자기 힘듦	.115 (*)	.106 (*)	.625 (**)	1						
머리 무거움	.108 (*)	.152 (**)	.456 (**)	.479 (**)	1					
팔다리 통증	.060	.033	.399 (**)	.350 (**)	.472 (**)	1				
소화 불량	.076	.132 (**)	.427 (**)	.440 (**)	.574 (**)	.408 (**)	1			
속쓰림	.132 (**)	.182 (**)	.394 (**)	.458 (**)	.516 (**)	.440 (**)	.565 (**)	1		
숨가쁨	.061	.159 (**)	.429 (**)	.510 (**)	.555 (**)	.432 (**)	.543 (**)	.582 (**)	1	
심장 마구뿔	.115 (*)	.148 (**)	.447 (**)	.439 (**)	.499 (**)	.395 (**)	.468 (**)	.528 (**)	.702 (**)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 과잉이 소화불량, 심장질환, 고혈압과 같은 신체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머레이(Murray, 1998)의 주장을, 그리고 데이터 스모그가 심장혈관 압력 증가와 같은 일련의 의학적 반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쉐크(Shenk, 1997)의 심리학적 실험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제 9 장 정보 과잉과 속의 민주주의

제 1 절 불확실성 대응방식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이슈가 발생하여 불확실성이 고조되었을 때 사람들의 미디어와 정보 이용행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대학의 신문방송학 전공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크게 4가지 대응방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보를 더 얻고자 미디어 이용을 증대한다. 2)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3)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한다. 4) 미디어의 정보를 회피한다. 어떤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 사회적 불확실성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이와 같은 4개 문항 각각이 정보 과잉과 정보부담 변인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1〉 정보 과잉과 대처방안에 대한 상관관계

	정보 과잉	정보 부담
매체 이용	.293(***)	.102(*)
의사 표현	.262(***)	.026
대화/토론	.342(***)	.108(*)
정보 회피	-.149(***)	.101(*)

* $p < 0.05$, ** $p < 0.01$, *** $p < .001$, 양방향 검증.

먼저, 정보 과잉 인식과 미디어 이용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정보 회피’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응 방안들과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r=.293$, $p=.001$). 이는 정보 과잉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논쟁적, 불확실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자 미디어 이용을 증대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더욱 빈번하게 표현하며, 대화나 토론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정보 환경이 과잉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정보에 대한 회피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떠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확실한 경우 사람들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더욱 활발하게 가져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보 대응 방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소득,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먼저 성별에 따른 대응방식의 차이 여부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결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미디어 이용을 증대한다는 측면에서만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대화나 토론을 행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 것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통계적 유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 성별 불확실성 대응 방식 차이

대응방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매체이용	여자	250	3.6920	.81965	2.023	498	.044
	남자	250	3.5400	.85986			
의사표현	여자	250	3.0080	.97763	1.868	498	.062
	남자	250	2.8400	1.03280			
대화/토론	여자	250	3.3320	.87684	1.662	498	.097
	남자	250	3.1960	.95142			
정보회피	여자	250	2.1280	.75491	-1.307	498	.192
	남자	250	2.2160	.75073			

다음은 연령별 대응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이 이뤄졌다. 4가지 대응방식에 대해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한다’는 항목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 연령별 불확실성 대응방식에 대한 분산분석

대응방식	연령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매체이용	집단-간	4.322	3	1.441	2.042	.107
	집단-내	349.950	496	.706		
	합계	354.272	499			
의사표현	집단-간	6.625	3	2.208	2.188	.089
	집단-내	500.488	496	1.009		
	합계	507.112	499			
대화/토론	집단-간	7.208	3	2.403	2.893	.035
	집단-내	411.944	496	.831		
	합계	419.152	499			
정보회피	집단-간	3.848	3	1.283	2.277	.079
	집단-내	279.360	496	.563		
	합계	283.208	499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대응방식을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변량분석을 토대로 추가 사후 검정이 실시되었다. 터키(Tukey HSD) 방식에 의한 다중비교분석은 연령대 가운데 20대와 30대간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토론에 참여하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9-4〉가 보여주듯, 불확실한 상황에서 20대는 30대에 비해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참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에 대한 비교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9-4〉 연령별 대화/토론 증대에 대한 다중비교분석

	N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10대	60	3.3333	.96843	a>b p<.05
20대a)	120	3.4583	1.00332	
30대b)	160	3.1688	.89176	
40대	160	3.1875	.83318	

다음은 소득과 불확실한 상황 대처방식의 차이여부를 살펴보았다. 월 소득과 4가지 대응방식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은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한다.’는 항목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 반면, 나머지 3개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5〉 소득별 ‘대화/토론 증대’에 대한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조합됨)	11.992	5	2.398	2.918	.013	
	선형항	가중되지 않음	9.338	1	9.338	11.360	.001
		가중됨	8.023	1	8.023	9.761	.002
		편차	3.969	4	.992	1.207	.307
집단-내		392.087	477	.822			
합계		404.079	482				

소득별 ‘대화/토론 증대’에 대한 모형이 유의미하여 추가 분석을 통해 항목 간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터키(Tukey HSD) 방식에 의한 다중비교분석은 월 소득이 401-500만원인 집단들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운데 연령, 소득에 있어 차이가 있었던 반면, 미디어 이용량을 증대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학력은 사람들이 불확실을 대응하는 방식들과 유의미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6〉 소득별 대화/토론 증대에 대한 다중비교분석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후검정
100만원이하a)	14	2.6429	1.00821	.26945	b>a p<.05
101~200만원	84	3.1429	1.11012	.12112	
201~300만원	107	3.1963	.91568	.08852	
301~400만원	113	3.2655	.84534	.07952	
401~500만원b)	87	3.4828	.80496	.08630	
501만원이상	78	3.3590	.82138	.09300	

제2 절 미디어와 참여 및 토론

미디어 팽창으로 인한 정보 과잉현상은 인터넷문화에 의해 가속화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무수한 텍스트가 무한 연결되어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유통되는 공간이며, 상호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공간 참여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9-7〉이 보여주듯, 인터넷 댓글과 토론에 대한 참여는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댓글과 토론에 참여하면 할수록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거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감소하면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이나 토론을 빈번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정보 과잉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하며 결국 이러한 인식은 정보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9-7〉 정보 과잉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상관관계

	댓글 참여	토론 참여
정보 과잉	.229(***)	.233(***)

인터넷 참여행위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에 대한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먼저, 인터넷 댓글 참여에 대한 성별, 학력, 소득, 연령대(10, 20, 30, 40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른 댓글 참여 행위가 유의미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 인터넷 댓글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8〉 인터넷 댓글 참여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27	.318		11.420	.000
성별	-.181	.109	-.075	-1.663	.097
학력	-.106	.081	-.065	-1.318	.188
월소득	.005	.040	.006	.134	.893
연령대	-.235	.059	-.193	-4.018	.000

F(4, 478)=6.892, $p < .001$, $R^2 = .055$

다음으로 인터넷 토론 참여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설명되는지 회귀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댓글 참여와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인터넷 토론 행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9-9〉 인터넷 토론 참여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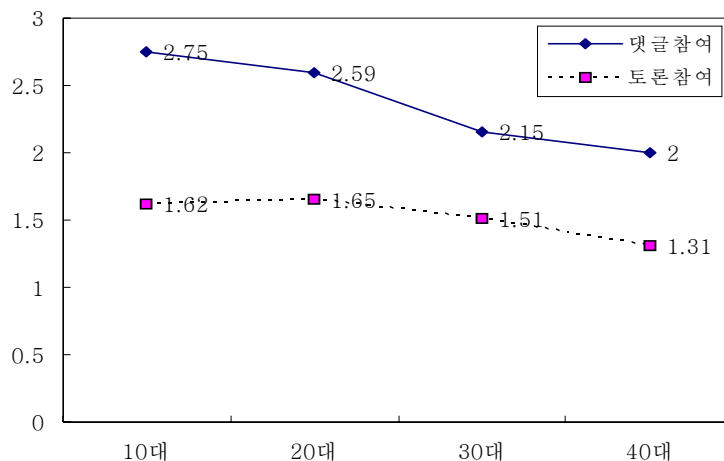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769	.219		8.074	.000
성별	-.087	.075	-.053	-1.158	.248
학력	.045	.056	.040	.801	.424
월소득	.010	.027	.017	.372	.710
연령대	-.115	.040	-.140	-2.857	.004

F(4, 478)=2.484, $p < .05$, $R^2 = .02$

인터넷 참여 행위가 연령대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령대별 인터넷 댓글과 토론 참여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9-1>과 같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인터넷 토론에 참여하기보다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10대와 20대가 댓글과 토론 모두에 있어 30, 40대보다 더 많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댓글은 10, 20대의 참여정도가 30, 40대에서 감소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연령별 직업분포에 따르면, 10대의 95% 그리고 20대의 49.2%가 학생이었다.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참여행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는 향후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젊은 층이 인터넷을 통한 대화나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새로운 매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원숙한 숙의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는 기대는 연령별로 구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인터넷이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담론 공간인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9-1) 연령대별 댓글 및 토론 참여 정도



제 10 장 결론 및 합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은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숙의 과정을 거쳐 상호이해에 도달하여야 한다. 미디어가 분화하고 팽창하여 다양한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여론조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 없이 정보화를 추구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때이다. 더 많은 정보가 반드시 더 나은 정보를 의미하지도 않고, 정보가 넘쳐날 때 더 많은 실수를 하거나, 타인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정보의 과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 팽창에 의한 정보 과잉의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에 가지는 합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제 1 절 미디어 이용과 정보 과잉

미디어의 증가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넘어설 정도의 과도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조성하였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한 결과,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나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매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하는 미디어에 따라 정보 과잉 인식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과 신문 이용시간이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 변수로 확인되었다. 다른 미디어의 이용을 통제하였을 경우 인터넷 이용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신문이용량의 영향력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행태와 더불어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정보과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나이, 학력, 소득은 정보 과잉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나이에 따른 정보 과잉 인식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20대의 정보 과잉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의 매체 이용 시간이 가장 높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된 자료에서 20대의 전체 매체 이용 시간은 약 108분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매체이용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특히 10대의 약 84분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학력에 따른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은 대학원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고졸, 중졸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정보 처리 능력을 넘어선 지나친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대졸의 71% 이상 그리고 대학원 이상 학력의 87% 이상이 30대와 40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가운데 이러한 정보 과잉 환경이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속성 가운데 성별은 정보 과잉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속성 변인에 미디어 이용량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정보과잉 인식 정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학력, 나이, 인터넷 미디어 이용량 순이었다. 즉, 정보과잉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적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새로운 정보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에, 학력이 높고 나이가 적으며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정보과잉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정보화 속에서 정보흐름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IT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거나, 학력이 높거나, 인터넷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과잉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보 부자라고 인식되어 왔던 사람들에게 정보 과잉의 심각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넘어선 정보 과잉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도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미디어 환경이 사람들의 정보 과잉과 높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정보 과잉은 특히 정보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학력 및 소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정보 과잉의 개인적 의미

불안·초조함, 우울·실망감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정서와 정보 과잉의 관계를 살펴해보았더니, 단순한 정보 과잉 인식 차원보다는 정보 과잉에 따른 부담감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불안·초조감이나 우울·실망감이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보 부담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도록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정보 과잉이 개인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면증, 동통, 소화기장애, 심장혈관장애와 정보 과잉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보환경(정보 과잉, 정보부담)과 개인의 신체적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보 과잉을 높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정보 과잉 부담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신체적 불안증상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 과잉이 소화불량, 심장질환, 고혈압과 같은 신체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머레이(Murray, 1998)의 주장을, 그리고 데이터 스모그가 심장혈관 압력 증가와 같은 일련의 의학적 반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생크(Shenk, 1997)의 심리학적 실험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이와 같이 정보 과잉은 개인적 차원에서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 과잉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초조해지거나 우울/실망감이 증대될 수 있고, 불면증, 동통, 소화기 장애, 심장혈관 장애 등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이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3 절 정보 과잉의 사회적 의미

정보 과잉이 야기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보 과잉과 사회적 인식(사회불안감, 사회불확실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현상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정보 과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화남, 두려움, 안타까움, 불안, 좌절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정보 과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흐뭇함, 희망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정보 과잉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보 과잉을 많이 인식하거나 경험한 사람은 화남, 두려움, 안타까움, 불안,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 정보 과잉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현상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불안감과 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감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낄수록 사회적 불안감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불안감을 비롯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단순한 정보과잉 인식보다는 정보과잉의 부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보 과잉이 사회 불확실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정보 과잉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불확실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처리에 대한 스트레스, 필요정보 습득의 어려움, 자신의 정보량 부족 등과 같은 정보 과잉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불확실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람들 주위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사회 불확실성의 지각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처리 능력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거나 정보 과잉에 따른 부담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더욱 불확실한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가지는 사회불안감이나 사회 불확실성과 같은 부정적 사회인식이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사회적 불안 및 불확실성은 국가 조직

에 대한 불신과 관련 있다는 주장(Nye et al., 1997)에 근거하여, 사회적 불안 그리고 불확실과 같은 부정적 사회인식이 사회제도 신뢰 및 대인 신뢰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 불안 및 불확실성은 정치행정 조직, 사법 조직과 같은 사회제도 신뢰에 그리고 이웃, 지식인, 종교지도자와 같은 대인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불안이나 불확실감을 많이 느낄수록 사회제도(정치행정, 사법) 및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불안 및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사회제도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 과잉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보 과잉이 정보에 대한 신뢰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보 과잉에 따른 정보 처리 부담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전체 미디어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는데, 특히 방송정보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보 과잉을 높게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다른 미디어에 비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정보 과잉을 겪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가 쏟아내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보 과잉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 과잉과 이에 따른 정보 처리 부담감이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러한 평가들은 국가 조직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 과잉의 부정적 효과로서 사회불안과 사회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국가 조직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속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trust)가 미디어 환경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사회신뢰도와 미디어 이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디어 이용이 정치행정 및 사법조직과 같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미디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문은 정치행정 조직과, 인터넷은 정치행정 조직 및 사법조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들 간의 관계를 보면, 신문 이용이 증대되면 정치행정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만,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질수록 정치행정 조직 및 사법 조직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 이용이 대인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신문 이용량의 증가가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사회제도 신뢰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신문 이용량은 정치/행정 조직에 대한 신뢰와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신문 이용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사회조직 및 인물에 대한 신뢰를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제도 신뢰에 대한 평가가 미디어 유형별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해주고 있다. 또한 타 매체에 비해 인터넷 매체는 사회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인터넷 매체가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탈규제적 담론형성이 이뤄지는 공간 기능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는 과거 텔레비전이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부분적으로 파괴시킨다는 주장(Bennett, et al., 1999)과 달리, 디지털시대에 신뢰 파괴의 매개체는 인터넷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풍부한 미디어 환경과 다양한 정보 환경이 미디어 기술 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검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 각 영역에서 정보 과잉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메커니즘 개발에 대한 노력이 기대된다. 나아가 교육적 측면에서도 미디어에 대한 조기 노출의 적절성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리라 기대되며, 이러한 정보환경을 관리할 국가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4 절 정보 과잉이 민주주의에 지니는 함의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이슈가 발생하여 불확실성이 고조되었을 때 사람들의 미디어와 정보 이용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 정보 과잉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논쟁적이고 불확실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자 미디어 이용을 증대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더욱 빈번하게 표현하며, 대화나 토론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떠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일 때, 즉 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 과잉을 인식한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인 정보유통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은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숙의 과정을 거쳐 상호이해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즉, 정보과잉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며 다른 사람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보과잉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을 느끼며 사회제도 및 대인 신뢰가 낮은 경향이 있어 ‘합리적 숙의 과정을 통한 상호이해 도달’이라는 목표에 제대로 이를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trust)를 저해하는 정보 과잉은 합리적 숙의과정을 통한 상호이해 도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과잉 환경을 적절히 통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상현,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지형”. 『한국언론학보』, 46-3호(여름), 2002. 45~79쪽.
- 권호영, “한국인의 미디어 이용과 지출행태의 변화”, 『KBI 포커스』, 07-04(통권24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 김영기, “현대 정보 사회와 웹 정보의 신뢰성 문제-이용자들은 웹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KADO 이슈리포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0호(통권 47호), 2007.
- 김영석,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 2002.
- 김정인, 『부정 정동과 사회적 기대가 직무 스트레스와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 박수애 · 송관제,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2005. 1-29쪽.
- 박창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공공영역의 쇠퇴인가 부활인가?”, 『사회이론』, 봄/여름, 2004. 117~141쪽.
- 방송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2002.
- _____,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2003.
- _____,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2004.
- _____,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2005.
- _____,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2006.
- _____,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2007.
- 신순호, 정보 과잉 섭취 불안증의 문제, 『고시연구』, 11, 2002. 336~337쪽.
- 심미선 · 김은미 · 이준웅,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패턴 연구. 『한국언

- 론학보』, 48권 2호, 2004. 189~217쪽.
- 심미선, 다매체시대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권 2호, 2007. 351~390쪽.
- 이상식 · 김관규, 케이블TV의 채널 레퍼토리(repertoire)에 관한 연구: 다양성과 분극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3호, 2001. 268~297쪽.
- 이상식, 『한국케이블TV 산업정책론』, 서울: 나남, 2008.
- 이승훈 · 김진화 · 변현수, Information Overload와 Information Minimalism,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196~201쪽
- 이은영, 『자기불일치 인지기제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공존현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 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08.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 산업 통계』, 2008.(<http://mediasis.kpf.or.kr>)
- 홍영호 · 송관재 · 박수애 · 이혜진 · 이재창,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2006. 129 – 160쪽.
- Bennett, S. E., Rhine, S. I., Flickinger, R., & Bennett, L. M. (1999). ‘Videomalaise’ revisited: Public trust in the media and government.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4(4):8 – 23.
- Bikson, T. K., & Panis, C. W. A. 『Computer and Connectivity: Current Trends』, 1996.(<http://www.rand.org/publications/MR/MR650/mr750.ch2/ch2.html>.)
- Chadwick, Andrew,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Chung, C. J., & Goldhaber, G. “Measuring communication load: A three-dimensional instrument”,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hicago, 1991.

- Gotlib, I. H., & Meyer, J. P. "Factor analysis of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list: A separ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986. 1161~1165쪽.
- Hacker, K., Howl, L., Scott, M., & Steiner, R. "Uses of computer-mediated political communication in the 1992 presidential campaign: A content analysis of the Bush, Clinton, & Perot computer list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3, 1996. 138~146쪽.
- Hartley, J. "The frequencies of public writing: Tomb, tome, and time as technologies of the public". In H. Jenkins & D. Thorburn, 『Democracy and New Media』, MA: The MIT Press, 2003. 247~270쪽.
- Heeter, C. "Program Selection with abundance of choice: A process model,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2, 1985. 126~152쪽.
- Heylighen, F. 『Change and Information Overload: Negative Effects』, 1999.
(<http://pespmc1.vub.ac.be/CHINNEG.html>.)
- Hwang, M. I. & Lin, J. W. "Information dimension, information overload and decision qualit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25(3), 1998. 213~218쪽.
- John, C. H. "Emotionality ratings and free-association norms of 240 emotional and non-emotional words", *Cognition and Emotion*, 2, 1988. 49~70쪽.
- Knight, W. 『'Info-mania' dents IQ more than marijuana』, 22 April 2005.
(<http://www.newscientist.com/article.ns?id=dn7298>).
- Miller, J. G. "Living system", *Behavioral Science*, 10, 1985. 337~412쪽.
- Miller, S. E. 『Civilizing Cyberspace: Policy, Power, and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MA: Addison-Wesley, 1996.
- Newman, W. & Pool, I. "The Flow of Communication Into the Home" in S. J. Ball-Rockeach & M. G. Gantor(eds.), 『Media, Audience and Social Structure』, CA: Sage, 1986. 71~86쪽.

- Nye, J., Zelikow, P., & King, D. (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Reuters. Six drown saving chicken: And other true stories form the Reuters “Oddley Enough” file. Carroll & Graf, 1996.
- Richard Saul Wurman. 『Information Anxiety』, 1990, 간태경, 성형동 (역), 『21세기 정보뱅크』, 서울: 평범사, 1993.
- Rosen, L.D. & Weil, M.M. 『The Mental Health Technology Bible, John Wiley and Sons』, 1997.
- Quinn, S. & Filak, V. F. 『Convergent Journalism: An Introduction』, Focal Press, 2005.
- Shenk, David, 『Data Smog: Surviving the information glut』, Harpercollins, 1997. 정태석, 유홍림 (역), 『데이터 스모그』, 서울: 민음사, 2000.
- Toffler, Alvin, 『Future Shock』, 1970, 장을병 (역), 『미래의 충격』, 범우사, 1997.
- Vattimo, G. (1992). 『The transparent society』. Johns Hopkins Univ. Press.
- Waddington, P. 『Dying for Information? A report 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overload in the UK and worldwide』, Jan. 1998.
(<http://www.cni.org/regconfs/1997/ukoln-content/repor~13.html#34>).
- Whillock, R. K. “Cyber-politic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 1997. 1208~1225쪽.

<http://epaper.kbc.go.kr>

<http://isis.nida.or.kr/>

<http://www.internetworldstats.com>.

<http://www.naver.com>

〈부록 1: 인터넷 조사 설문지〉

미디어 이용과 사회인식에 대한 수용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미디어 이용과 사회인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이용 행태와 사회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을 토대로 본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에 대한 응답은 맞거나 틀린 것이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미디어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자: 구교태·최현주(계명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053-580-5447, 5596, gtk@kmu.ac.kr

SQ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 1) 만15세 미만 2) 만15-19세 3) 20-29세
4) 30-39세 5) 40-49세 6) 50세 이상

⇒ 1, 6번 조사 중단/Quota Check

SQ1-1. (SQ1에서 2번 응답자) 귀하는 현재 어디에 재학 중이십니까?

⇒ 1번 응답자 조사 중단

- 1) 중학생 2) 고등학생 3) 대학생 4) 학생 아님

SQ2. 귀하의 성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Quota Check

- 1) 남성 2) 여성

감사합니다. 귀하는 본 조사의 응답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정답이 없으며, 안내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면 응답 내용에 따라 조사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매체 중에서 귀하께서 평소에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매체**는 무엇인지 **모두** 체크해주시시오.

- ① 지상파 텔레비전(KBS, MBC, SBS)
- ② 케이블TV(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채널) 또는 위성TV
- ③ 종이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 ④ 인터넷
- ⑤ 라디오
- ⑥ DMB(지상파/위성)

2. 아래에 제시된 매체 중에서 귀하께서 **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 3가지를 **순서대로 그 번호를 적어**주시시오.

1위: _____ 2위: _____ 3위: _____

3. 아래에 제시된 매체 중에서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신뢰하는 매체** 3가지를 **순서대로 그 번호를 적어**주시시오.

1위: _____ 2위: _____ 3위: _____

4. 다음은 매체(신문, TV, 인터넷)를 이용하는 데 보내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각 매체 이용시간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시간, 분
4-1. 평균적으로 하루에 지상파 텔레비전(KBS, MBC, SBS)을 시청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십니까?	(시간 분)
4-2. 평균적으로 하루에 케이블TV(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채널) 또는 위성TV를 시청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십니까?	(시간 분)
4-3. 평균적으로 하루에 종이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을 보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시간 분)
4-4. 평균적으로 하루에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시간 분)
4-5. 평균적으로 하루에 라디오를 이용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시간 분)

5. 다음은 매체(신문, TV, 인터넷)를 이용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에 제시된 진술문이 각 매체의 이용 동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아래의 보기에 제시된 번호를 골라 적으십시오.

- [보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 항	신문	TV 방송	인터넷
5-1. 시간 때우기에 좋아서			
5-2.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5-3. 본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 있어서			
5-4.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5-5. 하고 있는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5-6.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5-7.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일이므로			
5-8.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5-9. 외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에			
5-10.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만나기 위해			
5-11. 개인적 흥미를 충족하기 위해			
5-12.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 세부문항 Rotation

6. 귀하께서는 각 미디어에 대해 설명하는 아래 진술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보기]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문 항	신문	TV방송	인터넷
6-1.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다룬다.			
6-2. 공정하게 보도한다.			
6-3. 사건의 진실을 보도한다.			
6-4. 정확하게 보도한다.			
6-5. 우리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6-6.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려준다			
6-7. 상업적이다			
6-8. 정보의 내용이 선정적이다.			
6-9. 정보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6-10. 정보의 전문성이 있다.			
6-11. 정보의 출처가 분명하다.			
6-12. 정보의 내용이 무책임하다.			
6-13. 정보가 흥미위주이다.			

⇒ 세부문항 Rotation

7.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각 문항에 동의 정도를 체크해주시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나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편지, 대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2. 나는 나의 업무나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3. 나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4. 나는 결정을 내려야하는 정보를 자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5. 내가 받은 정보가 나에게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해 많은 설명이 필요한 정보를 자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6. 나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7-7.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정보가 모호한 경우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7-8. 모호한 정보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토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9.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10.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11. 나는 이메일, 메신저, 전화 등으로 인해 업무나 공부에 방해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12. 나는 많은 정보로 인해 정보처리에 부담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13.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7-14.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15. 세상의 정보량에 비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16.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17. 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세부문항 Rotation

8.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단체 및 기관, 인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 [보기]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신뢰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신뢰한다. ⑤ 매우 신뢰한다.

1. 단체 및 기관

1) 헌법재판소	①	②	③	④	⑤
2) 국회	①	②	③	④	⑤
3) 법원/사법부	①	②	③	④	⑤
4) 행정부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①	②	③	④	⑤
6) 정당	①	②	③	④	⑤
7) 검찰	①	②	③	④	⑤
8) 학교	①	②	③	④	⑤
9) 기업	①	②	③	④	⑤
10) 언론사	①	②	③	④	⑤
11)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12) 종교지도자(신부/목사/승려)	①	②	③	④	⑤

2. 인물

1) 대통령	①	②	③	④	⑤
2) 정치인	①	②	③	④	⑤
3) 경찰	①	②	③	④	⑤
4) 네티즌/누리꾼	①	②	③	④	⑤
5) 이웃	①	②	③	④	⑤
6) 지식인(교수/전문가 등)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선택해 주십시오.

- [보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 항	보 기
9-1.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고 거래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9-2. 처음 보는 사람과 거래할 때에는 조심할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9-3.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9-4. 누구라도 남을 믿는 만큼 보답이 돌아온다.	① ② ③ ④ ⑤
9-5. 우리나라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⑤
9-6.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9-7. 사람은 가까이 지내며 꺾어봐야 믿을만한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8.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것보다 친척, 동창 등 연고가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 세부문항 Rotation

10. [사회감정지수]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현상 전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에 제시된 구체적인 감정단어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 [보기]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 항	보 기
10-1.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0-2. 걱정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3.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세부문항 Rotation

11. 다음 문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동의하다	매우 동의하다
11-1.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11-2. 우리 사회는 예측하기 어렵다.					
11-3. 우리 사회에서는 노력해도 사회 계층이 올라갈 수 없다.					
11-4. 우리 사회에서는 원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11-5. 우리 사회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					
11-6.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은 불확실하다.					
11-7.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나 조직을 믿을 수 없다.					

⇒ 세부분항 Rotation

12. 다음 문항을 잘 읽으시고 최근 한 달 동안 다음 사항들이 귀하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일어난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없었다.	그렇지 않았던 편이다	그럴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자주 그랬다
12-1.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자주 깬다.					
12-2. 잠을 자기가 힘들다.					
12-3.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12-4. 팔다리가 쭈시고 아프다.					
12-5.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된다.					
12-6. 속이 쓰리고 아프다.					
12-7. 숨이 가쁘고 답답하다.					
12-8.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 세부분항 Rotation

13. 아래 기술된 단어들은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읽어보
 시고 요즈음을 포함한 현재 귀하의 정서 상태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①아주 조금 있다 ②조금 있다 ③보통이다.
 ④많이 있다 ⑤아주 많이 있다

문 항	보 기				
13-1. 침울한	①	②	③	④	⑤
13-2. 만족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13-3. 안심되는	①	②	③	④	⑤
13-4. 두려운	①	②	③	④	⑤
13-5. 슬픈	①	②	③	④	⑤
13-6. 뿌듯한	①	②	③	④	⑤
13-7. 걱정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13-8. 무기력한	①	②	③	④	⑤
13-9. 실망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13-10.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13-11. 긴장된	①	②	③	④	⑤
13-12. 침착한	①	②	③	④	⑤
13-13. 생동감 있는	①	②	③	④	⑤
13-14. 초조한	①	②	③	④	⑤
13-15. 희망찬	①	②	③	④	⑤
13-16. 안절부절 못한	①	②	③	④	⑤
13-17. 차분한	①	②	③	④	⑤
13-18. 거리낌 없는	①	②	③	④	⑤
13-19. 무가치한	①	②	③	④	⑤
13-20.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 세부분항 Rotation

14. 어떤 주제에 대한 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을 때 귀하께서는 미디어와 정보의 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문항에 대해 귀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1. 정보를 더 얻고자 미디어 이용을 증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2.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3.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4. 미디어의 정보를 회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세부분항 Rotation

15. 지난 1주일 동안 귀하께서는 인터넷에 댓글이나 게시글을 단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매일

16. 지난 1달 동안 귀하께서는 인터넷 토론에 참여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 이상

17. 귀하는 인터넷 토론에 한번이라도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7=1 이면, 18번으로, 17≠1 이면, 23번으로

18. 인터넷 토론에 참여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인터넷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는 의견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평균 ()회 정도

20. 다음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인터넷 토론 참여 동기는 무엇인지 아래 제시된 문항에 대해 귀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 토론 주제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토론에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2. 토론 참여자 의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3. 토론 참여자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4. 토론 주제가 흥미로워서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5. 내 의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토론에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6. 토론 주제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자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7. 토론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8. 자신과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세부분항 Rotation

21. 다음 문항을 잘 읽으시고 인터넷 토론에서 행한 **귀하의 의견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떠한지 아래 제시된 문항에 대해 귀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1.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주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2. 토론 참여자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3. 토론 참여자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4. 자신의 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5. 자신의 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6. 자신의 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7. 사실이나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세부문항 Rotation

22.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귀하는 어떤 태도를 주로 취하시는 편입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시는 정도를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보기]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 항	보 기				
22-1. 내가 반대하고 싫어하는 주장이라도 일단 무슨 말인지 끝까지 듣고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2.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도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3. 의견대립이 있더라도 토론을 통해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세부문항 Rotation

인구 통계 문항

23. 귀하의 학력은?

- ① 초등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졸

2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자유/전문직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종교인, 언론인 등)
- ② 경영/관리직
 (기업체 부장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종업원 9인 이상의 기업체 사장 등)
- ③ 사무/기술직(과장 이하 회사원, 공무원 등)
- ④ 판매/영업/서비스직
 (점원, 보험설계사, 세일즈맨,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음식서비스 등)
- ⑤ 기능/작업/단순노무직
 (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생산직, 배달, 운반, 세탁, 기사 등)
- ⑥ 자영업 ⑦ 농/임/어/축산업 종사자 ⑧ 전업 주부
 ⑨ 학생 ⑩ 기타 ⑪ 무직

25. 귀하 닥 가족 전체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500만원 ⑥ 501만 원 이상 ⑦ 모름/무응답

26. 선생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원불교
- ⑤ 기타 ⑥ 종교 없음

27. 자신의 정치이념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보수주의적 ② 다소 보수주의적 ③ 중도주의적
- ④ 다소 진보주의적 ⑤ 진보 주의적

28. 귀하는 오프라인에서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가족과 대화합니까?

하루 평균 ()분

29. 귀하는 오프라인에서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친구 혹은 직장동료와 대화합니까?

하루 평균 ()분

30. 귀하는 전화(유선, 휴대폰)를 통해서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가족과 대화합니까?

하루 평균 ()분

31. 귀하는 전화(유선, 휴대폰)를 통해서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친구 혹은 직장동료와 대화합니까?

하루 평균 ()분

32. 자신을 포함한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지난 1개월 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명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연구 시리즈 안내

- 08-01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연구-총괄보고서 (황주성, KISDI)
- 08-02 방통융합의 철학과 비전 (황주성, KISDI)
- 08-03 방통융합시대 시민참여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원태, KISDI)
- 08-04 방통융합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변화 (손상영, KISDI)
- 08-05 방통융합 시대의 행복감 연구 (최항섭, KISDI)
- 08-06 방통융합 시대의 미디어 이용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이호영, KISDI)
- 08-07 방통융합의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결정 거버넌스 연구 (정국환, KISDI)
- 08-08 방통융합시장의 특성과 경쟁정책기조의 변화 (손상영, KISDI)
- 08-09 이용자 중심의 방통융합성과 분석방안 연구 (황주성, KISDI)
- 08-10 컨버전스 시대 지속가능한 미디어 환경을 위한 정책연구 (이호영, KISDI)
- 08-11 온라인 세대의 네트워킹과 집단지성화에 대한 미래 정책 연구 (최항섭, KISDI)
- 08-12 컨버전스 시대의 한국사회 메가트렌드 연구 (최항섭, KISDI)
- 08-13 뉴미디어에 대한 매체철학적 해석 (이승중, 연세대)
- 08-14 탈근대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관계의 변화 (노명우, 아주대)
- 08-15 뉴미디어의 의사소통성과 쌍방향성 (노기영, 한림대)
- 08-16 커뮤니케이션 방식 진화에 따른 세대 간 인간관계의 변화 (구철모, 조선대)
- 08-17 사이버공간의 도움행동과 현실에서의 인간관계 (임영식, 중앙대)
- 08-18 미디어에 대한 신뢰와 사회여론의 변화 (김세은, 강원대)
- 08-19 공론장과 집단행동의 변화 (송현주, 한림대)
- 08-20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자본과 미디어 이용 (정재기, 숭실대)
- 08-21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변화 (이재신, 중앙대)
- 08-22 복잡계와 네트워크 사회의 변화 (이명진, 고려대)
- 08-23 가상현실 내에서의 사회구조의 형성과 변화 (이연호, 연세대)
- 08-24 컨버전스로 인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 변화 (남기범, 서울시립대)
- 08-25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수용과 문화정체성 (김영찬, 한국외국어대)
- 08-26 미디어과잉과 사회의 불확실성의 증가 (구교태, 계명대)
- 08-27 다중미디어환경에서의 수용자의 특성과 미디어선택 (황하성, 동국대)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08-26

미디어과잉과 사회의 불확실성의 증가

2008년 12월 일 인쇄

200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 석 호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 크리홍보(주)

ISBN 978-89-8242-451-9 94330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http://www.kisdi.re.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Tel. 570-4114 Fax. 579-4695~6